

## 유만주(兪晩柱)의 마지막 일기와 이상적 공간의 기획

김하라\*

- I. 『흙영(欽英)』의 시작과 끝
- II. 유만주(兪晩柱)의 마지막 일기
- III. 마지막 일기에 앞선 마지막 목록의 풍경
- IV. 마지막 구절의 의미: 마음의 붉은 눈송이가 그치도록

### <국문초록>

18세기 후반 서울에 거주한 사대부 지식인 유만주(1755~1788)는 1775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썼다. 12년간 정성스레 일기를 이어 오던 그는 1787년 5월 장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일기쓰기를 중단했다. 다만 죽은 아들의 애도 기간으로 규정된 7개월간 아들을 기억하기 위한 일기를 더 쓰고 완전히 그만두기로 스스로 약속했다. 그는 약속대로 1787년 12월 14일에 “달 그림(月畵)을 제어해 끊고 마음의 붉은 눈송이(丹雪: 연지분)가 그치도록”이라는 모호한 문장을 써 일기를 맺었다.

본고에서는 그가 절필을 앞둔 1787년 12월 1일에 작성한 ‘원서(園墅) 제편(題欄)’을 분석해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했다. ‘원서 제편’은 ‘임화동천(臨華洞天)’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21가지 건축물과 조경시설, 자연환경의 범주와, 각각의 범주에 속한 개별 항목의 이름 213개로 구성된 목록이다. 유만주가 사랑하고 꿈꾼 풍경과 공간을 수렴한 이 목록은 1775년부터 그가 지속적으로 시도한 ‘임화동천’이라는 이상향의 기획을 계승하여 결산한 것이었으며, 심미적 몽상가이자 소설의 작가로 나아가던 유만주의 자아를 그려낸 마음 속 그림이자 일종의 자기서사다.

\*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한편 아들의 애도를 위해 쓰고 있던 일기에서 자신의 미적 취향에 집중한 글쓰기로 일탈한 유만주는 그런 자신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에 그는 아들을 애도하는 절차를 마친 후, 더 이상 꿈을 좇고 아름다움에 탐닉해 수식을 일삼는 글쓰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마지막 문장을 쓴 것으로 보인다. ‘달 그림’이란 그의 몽상을 담은 목록이 그려낸 풍경을 가리키고, ‘마음의 붉은 눈송이’란 아름다운 상상세계를 치장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들을 ‘그치겠다’는 『흙영』의 마지막 문장은 끝까지 버리지 못한 심미적 취향과 일생 지속된 몽상을 결국 부인하는 것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을 함축하고 있다. 이 문장을 통해 유만주가 더 이상 글을 쓰고 살아갈 여지를 스스로 허용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은 예정대로 일기를 마치고 1달 남짓 지난 1788년 1월 29일에 유만주가 사망한 일과도 조응한다.

핵심어: 유만주, 『흙영』, 일기, 이상향, 목록, 자기서사, 조정

## 1. 『흙영(欽英)』의 시작과 끝

18세기 서울의 사대부 지식인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생애 후반의 13년간 일기를 썼다. 그는 그 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정돈해 24책의 『흙영』(欽英)으로 남겼다. ‘전영(前英: 예전의 賢英)을 흙모한다<sup>1)</sup>’는 의미의 그 책제(冊題)는, 애정 어린 독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저자의 자호(自號)이기도 하다.

한편 『흙영』은, 수시로 작성하여 축적한 비망록에 그치지 않으며, 저자가 자각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 스스로 결말까지 맺은 저술이라는 점에

1) ‘흙영’은 유만주의 조어(造語)로서 ‘책 속의 현영(賢英: 어질고 훌륭한 사람)을 흙모한다’는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를 편찬하여 먼지에 매물된 투식을 내려다본다. (...) 가슴에 도사리고 마음에 맺힌 말은 내가 전영을 흙모한다는 것. ○編纂是圖是書, 下視套式之埋塵, (...) 胸蟠心凝, 我欽前英.”(1782.2.14.) 한편 괄호 속의 숫자는 유만주가 일기를 쓴 음력 날짜로서 해당 인용문이 『흙영』 1782년 2월 14일조에 실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서, 삶의 시간을 가능한 한 끝까지 포괄하려는 일반적인 일기와 구별된다. 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자각적인 경우도 없지 않지만, 누구든 앞날을 알 수 없는 만큼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쓰게 되는 대부분의 일기는 늘 다음날을 향해 열려 있는 하루로 끝나기 마련이다.<sup>2)</sup> 그런데 유만주는 21세의 설날부터 꾸준히 쓴 일기를, 34세의 설날을 보름 앞둔 1787년 12월 14일에 스스로 마쳤다. 그는 자신의 일기가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 자각적으로 인식해 밝히고 있거니와, 일기가 끝날 무렵에는 스스로 설정한 어느 시점에 절필할 것을 예고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마지막 일기를 썼다. 이후 그는 일기 없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보름을 살고 1788년 1월 29일에 사망했다. 이런 정황을 보건대, 12월 14일의 마지막 일기는 저자의 유언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월화(月晝)를 제어해 끊어버리고 마음의 단설(丹雪)이 그치도록”(月晝制斷, 剋止心丹雪)이라는 그 전문(全文)은 ‘끊다’와 ‘그치다’라는 동사가 내포한 ‘중단’의 함의 외에는 모호한 채로 남아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흙영』이 없으면 나도 없다<sup>3)</sup>는 유만주의 고백에서도 드러나거니와, 이 일기는 저자의 온 존재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저자는 일기에 문자화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를 바랐고, 그렇게 구축된 결과물인 이 일기에 하나의 완결된 저술로서 의미를 부여했다. 본고는 이 일기에 처음과 끝이 자각적으로 설정된 점을 단서로 삼아, 유만주 생전의 유일한 저술인 『흙영』이 자기서사로서 모종의 일관성과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대해 해명하고 이 일기의 마지막 구절을 독해하려는 시도이다.

2) 예컨대 소설가 박완서는 사망 이틀 전인 2011년 1월 20일(양력)에 다음과 같이 마지막 일기를 썼다. “병원 가는 날. 퇴원 후 첫 바깥나들이라 며칠 전부터 걱정이 되었는데 잘 다녀왔다. (...) 나는 자신이 좀 생겼다. 집에 와서도 많이 앉아 있었다. 일기도(메모 수준이지만) 쓰기로 했다. 살아나서 고맙다. 그동안 병고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죽었으면 못 볼 좋은 일은 얼마나 많았나. 매사에 감사. 점심은 생선초밥으로 혼자 맛있게.”(박완서, 『예술사 구술총서 5 박완서』, 수류산방, 2012. 30면) 마지막 일기에서 ‘일기를 다시 쓰기로 한 점이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향해 열려 있는 결말로서 주목되며, 이 점 일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판단된다.

3) ○我不能文, 文在『欽英』; 我不能詩, 詩在『欽英』; 我不能言, 言在『欽英』; 我不能經濟一地, 經濟一地在『欽英』, 無『欽英』則無我矣.(1783.6.27.)

## II. 유만주(兪晩柱)의 마지막 일기

### 1. 명료한 첫 일기와 모호한 마지막 일기

1786년 11월 29일, 32세의 유만주는 처음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던 12년 전의 어느 하루를 떠올렸다. 벗 임노(任魯)가 자기 일기에 서문을 써 달라 했기 때문이다. 원래 유만주와 함께 일기를 쓰기로 약속한 바 있던 임노는 그제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며 12년간 일기를 써 온 벗의 격려를 구했다. 이날 유만주는 서문의 초고를 쓰며, 둘이 함께 일기를 쓰기로 한 일에 대해 임노의 목소리를 빌어 이렇게 말했다.

영조 갑오년(1774) 흥영(欽英: 유만주의 호)과 함께 교외인 청량리에서 경전을 읽었다. 논정하기를, 옛사람이 글을 모아 기록하는 법이 많으나 대체로 날마다 적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했다. 날마다 적게 되면 견문이 갖추어지고 시비가 나누어지며 몸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일과 말을 다스리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공사(公私)의 시말을 포괄할 수 있고 고금(古今)의 기정(奇正)을 밝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듬해 초봄 첫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흥영은 돌아가 그 약속을 실천했지만, 나는 이제껏 12년 동안 온갖 번고를 겪어 거듭 비바람을 맞고 큰 파도에 흔들리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느라, 청량리에 우거한 세월이 적지 않았지만 일기를 쓸 겨를이 없어 낙담하고 부끄러워했다.<sup>4)</sup>

이에 따르자면 유만주와 임노는 20세의 거자(擧子)로서 경전을 공부하던 중 학업 성과를 기록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일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일기 쓰기가 견문을 갖추고 시비를 분간하며 심신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다스리며 공사(公私)의 일들을 파악하고 고금의 역사를 평가하는 등 학업과 수신(修身)의 일에 공히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새해에 곧장 시작하기로 약속

4) “英宗甲午，與欽英讀經于靑梁之郊。訂古人纂錄之法，其類多矣，而概莫善於記日。記日則該見聞，列是非，櫟括身心，平章事言，涵公私之始末，徵古今之奇正，擬以翌歲孟春上日而始焉。欽英歸而克踐之，名則逮今十有二年之間，經歷百變，風雨之蠱而溟濤之盪也。寄寓靑郊，日月不爲不多而亡皇暇記，嘗廢然而媿也。”(1786.11.29.) 이날 유만주는 “『삼성록』의 첫머리에 붙일 서문을 쓰다”(序『三省錄』首)라는 도입부 아래 이 초고를 썼다. 글 안에서 임노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名’ 혹은 ‘姓名’이라 해 놓은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이 글에 대해 약간의 수정을 거친 결과가 유만주의 문집 『통원고』(通園藁)에 『三省日錄』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 참조된다.

했다. 임노는 부친이 유배지 단천(端川)에서 돌아가신 일을 포함한 집안사정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지만, 유만주는 다음과 같이 첫 일기를 쓰고 이런 일기를 13년간 이어 나가 약속을 지킬 것이었다.

초1일 기유(己酉). 맑음. 바람의 기운이 조금 사나웠다.

○사당에서 시사(時祀)를 지냈다. ○요(堯)임금의 갑진년(B.C 2357)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4132년이 흘렀고, 송정제(崇禎帝)의 갑신년(1644)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32년이 흘렀으며, 강헌대왕(康獻大王) 임신년(1392)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384년이 흘렀다. ○『밀옹유고』(密翁遺稿) 17판을 읽었다. 정밀하고 빼어난 기운이 넘치며, 모두가 깎아지른 듯한 문장이다. 이를테면 ‘마음은 올바른데 일이 어긋나는 것은 군자가 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일은 반듯하게 하지만 마음이 벗어나 있다면 소인이 된다.’(…) 등의 구절은 비록 선유(先儒)의 설을 부연했어도 진부하거나 거칠지 않다. ○저녁에 낙동(駱洞: 현 충무로)에 가 뵈고 밤이 깊어 돌아왔다. 종백(從伯)이 준 『표인문답』(漂人問答) 10여 조를 봤다. ○금주령이 내려졌다.5)

21세의 유만주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영조 을미년 정월 초하루는, 요임금의 즉위와 명의 멸망, 조선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도달한 ‘오늘’로 정의된다. 요순의 정치를 이상으로 삼는 동아시아의 전통, 명의 멸망과 청의 지배로 정의되는 당대사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의 영향 하에 있는 조선사의 진행을 1775년 1월 1일 하루에 수렴한 유만주의 시간 의식은, 그가 현재를 사는 자신을 일종의 역사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간지(干支)로는 기유일(己酉日)에 해당하며 맑고 바람이 조금 거센던 이 하루 동안 유만주는 설날 차례를 지내고, 동시대의 노론계 학자 김지행(金砥行)의 문집을 열독하며, 근방의 친척 유준주(俞駿柱)의 낙동 집을 방문하고 조선에 표류한 외국인의 동향을 살피고 금주령과 같은 국가의 정책을 확인했다. 이처럼 하루의 시간을 조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규정하고 그 하

5) 初一日己酉。晴。風氣稍厲。○廟過節享。○自帝堯甲辰，至今爲四千一百三十二年，崇禎甲申，至今爲百三十二年，康獻壬申，至今爲三百八十四年。○閱『密翁遺稿』十七板。精英溢發，都是削成底文字，如曰：“心正事差無害爲君子，事正心邪爲小人。”(…)凡此類，雖演先儒之說，而不陳不粗。○夕拜駱洞，夜深而還。見從伯所與『漂人問答』十餘條。○申酒禁。(177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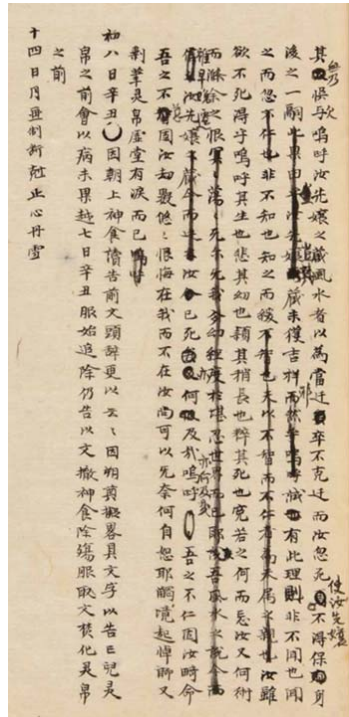
루를 공사(公私) 영역에서의 경험으로 채우고 있는 유만주의 첫 일기는, 서울 남촌에 거주하며 장차 역사가가 되고자 했던 사대부 청년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새긴 기록이 12년 12개월간 쌓인 후, 33세의 유만주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14일. 월화(月晝)를 제어해 끊어버리고 마음의 단설(丹雪)이 그치도록.<sup>6)</sup>

1787년 12월 14일의 이 일기는 처음 쓴 일기는 물론 그가 여태껏 쓴 일기와도 여러 모로 달랐다. 책력에 표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만주는 날짜와 그날의 간지를 쓰는 것으로 일기의 도입부를 삼아 왔다. 그에 따르자면 ‘14일’ 뒤에는 ‘정미’(丁未)라는 간지가 표시되어야 했다. 게다가 날씨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유만주의 일기에서 꼭 일관된 경향이다.<sup>7)</sup> 그러나 12월 14일은 간지가 없고 날씨도 없는 하루라는 점에서 그의 일기 관습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일기에서 역사적 구체성을 소거하는 효과를 낸다.

또한 ‘끊어버리다’(斷)와 ‘그치다’(止) 같은 동사가 중단의 메시지를 담아 일기 바깥의 절필 행위와 조음하고 있는 것 외에, 체언이 되는 ‘월화’(月晝: 달 그림)와 ‘단설’(丹雪: 붉은 눈송이. 연지분이라는 뜻도 있음)은 그것이 중단의 대상이라라 추측은 되나, 정확히 무엇을 지시하는지 파악이 쉽지 않



<도판1> 『흙영』 마지막 면. 1787년 12월 14일 일기로 끝나고 있다.

6) 十四日. 月晝制斷, 剋止心丹雪.(1787.12.14)

7) 김하라, 『『흙영』 일기에 제현된 경험적 시간의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1집, 2008. 477~506면.

다. ‘단설’ 앞 ‘마음의(心)라는 관형어를 통해 이 구절이 저자의 내면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유만주 일기의 마지막 한 문장은, 하루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구성하는 정보들이 누락된 채 비유적 단어가 목적어 자리에 있어, 1787년 12월 14일의 구체적 시공(時空)을 재현하지 않으며 모호하고 요해하기 어렵다. 이 점은 앞서 제시한 1775년 1월 1일 일기의 명료함과 견주었을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이며, ‘그 사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다음 절에서는 이 의문을 단서로 삼아, 마지막 일기를 쓰기까지 유만주의 생애 궤적을 따라가며, 그가 ‘끊어버리고’ ‘그치고자’ 했던 ‘달 그림’과 ‘붉은 눈송이’의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 2. 마지막 일기를 예고하다

1787년 12월 1일은 유만주가 일기를 끝맺기로 기약해 둔 날이었다. 1774년 겨울, 임노와 약속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써 온 일기였다.

사실 유만주는 1787년 5월 15일에 이미 자신의 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들 유구환(俞久煥, 1773~1787)이 병사한 지 나흘째 되는 이날, 그는 이 15세 소년의 아버지로 상복을 입고 아들 영전에 올릴 긴 글을 썼다. 그 글에서 그는 자기 일기가 아들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뒤늦게 고백했다.

나는 이 일기를 네가 세 살 되던 해에 처음 쓰기 시작했고, 이제 13년이 되도록 한 번도 건너편 적이 없다. 약을 달이는 일을 돌보고, 정해진 공부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집 안팎을 오고가는 그런 것들을 적는 가운데, 너에 대한 일들은 거의 빠짐없이 적어 두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들을 감춰 두었고, 너도 내 뜻을 알아 그다지 보려 들지 않았다.

아! 내가 이 글을 써 왔던 것이 어찌 그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한 습관적인 행동일 뿐이었겠느냐. 나는 내가 쓴 것을 네게 보여주고 네게 물려주어, 네가 널리 보고 들어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려 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젠 끝났다. 이걸 써서 무얼 하겠느냐. 그래서 네가 죽은 날부터 마침내 그만두고 다시는 쓰지 않기로 했다. ‘사람과 거문고가 함께 죽었다’는 옛사람의 탄식에 견주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가까울 것이다.<sup>8)</sup>

유만주는 자신의 일기쓰기가 개인적 기호(嗜好)에 치우친 습벽(習癖)이 아니라, 아들이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돕는 하나의 선물로서 아들의 존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했다. 어떤 면에서 아들은 일기의 존재 이유였던바 ‘사람과 거문고가 함께 죽었다’는 비탄은 아들의 죽음이 일기의 죽음까지 불러올 것임을 의미했다. 이 말대로 더 이상 일기를 쓸 이유를 찾지 못한 유만주는 아들의 입관 다음날인 5월 15일에 절필을 결심했다.

그럼에도 그는 5월 16일부터 일기를 다시 쓰며 그 마지막을 7개월 뒤로 유예했는데, 이는 우선 그만큼의 시간이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를 위해 상례(喪禮)에서 규정한 추모 기간이었기 때문이다.<sup>9)</sup> 향후 7개월의 일기를 오롯이 아들을 위해 쓰기로 밝힌 그는, 1787년 5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쓰게 될 일기를 기존의 일기책으로부터 분리한 후 다음과 같은 서문을 붙여 그런 사정을 밝혔다.

아! 사람이 마음먹은 바를 뜻대로 실행하고 처리하는 게 어찌 안배한 대로 되는 일이겠는가? 처음 나는 일기를 쓰며 널리 포괄하고자 노력했지 간단히 하려 하지 않았고 크게 하고자 노력했지 자잘하게 하려 하지 않았던바, 60부에 1천 권까지 쓰고자 계획했었다. 그렇게 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와 나의 문예를 이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증거로 남겨두고자 했고, 내 문예가 훌륭한지 보잘 것없는지 내 말이 순수한지 흠이 있는지 내 행위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내 마음이 공정했는지 편향됐는지를 모두 헤아려보고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랐다. 뿐만 아니라 예와 지금, 중화와 이민족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이르기까지 해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대개 이 일기는 내 평생의 유일한 대문헌(大

8) 吾之記日之書，始自汝三歲之歲，而逮今十三年，寔無間斷。湯餽課業與居出入之節，凡屬汝者，幾乎隨事載錄。然吾既秘之，汝亦知吾意，不甚觀閱。嗚呼！吾之爲此書也，豈徒仍吾之癖從吾所好而已！將以示汝傳汝，俾爲汝博聞多識之一助焉耳。今焉已矣，爲此安用？故自汝死之日，遂廢而不復記。古人所歎‘人琴俱亡’者，擬雖不倫其近之矣。(1787.5.15.) ‘人琴俱亡’은 본디 죽은 형제를 애도하는 말이다. 왕희지(王羲之)의 다섯째 아들 왕희지(王徽之)와 일곱째 아들 왕현지(王獻之)가 모두 병에 걸렸는데, 아우 왕현지가 먼저 죽었다. 이때 형 왕희지가 아우의 거문고를 닮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자 “사람과 거문고가 모두 죽었구나”(人琴俱亡)라며 애통해 했고 한 달 뒤에 그 역시 죽었다.

9) 요절한 자식의 장례에 대한 『喪禮備要』의 규정에 따르면, 長殯(16~19세에 사망)은 大功(9개월), 中殯(12~15세에 사망)은 七月, 下殯(8~12세에 사망)은 小功(5개월)의 복을 입는다(子, 長大功, 中七月, 下小功). 15세에 사망한 유구환은 중상에 해당하므로 그 아버지는 7개월간 상복을 입는 것이 맞다.

文獻이라 하겠다.

내게는 원시(元視) 유구환의 자라는 아들이 있었다. 날 때부터 맑고 순수했으며 뜻이 있고 행실이 있으며 자질이 있고 문장이 있었기에 나는 그 애를 무척 대견히 여겼다. 그저 내 행실이 스승 되기에 부족하고 말이 가르침을 주기에 부족하며 문예가 후세에 남기에 부족하지만, 이것을 그 애에게 전하여 널리 보고 들어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본디 일기를 남기려는 이유였다. 비록 옛사람에게 부끄러운 바는 있어도 저 노비나 전답, 금은보화 따위를 남기는 데 비하면 그래도 나올 것이었기에 나는 일기 쓰기를 게을리 할 수 없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른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질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데다 천치신명을 저버려서 그 재앙이 내 아들에게 닥쳐왔다. 이번 여름에 원시가 질병으로 요절한 것이다. 갈피를 못 잡고 부르짖을 뿐 물어볼 데도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영영 울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죽었다. 글을 물려줄 수 없다. 글을 평가하고 검토하고 가다듬어 정돈할 수도 없다. 글을 그만 쓰는 게 맞다. 그만 쓰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어질지 못한 것이다. 나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글을 써서 아들의 관 앞에서 맹세하며 부르짖은 것이다.

60부를 계획했지만 13부로 마치고, 1천 권을 계획했지만 200권으로 끝나며, 정리해서 남에게 보일 생각도 없다. 사람이 마음먹은 바를 뜻대로 실행하고 처리하는 게 어찌 안배한 대로 되는 일이라.<sup>10)</sup>

앞서 아들의 죽음이 일기의 죽음을 초래할 것임을 예견했거니와, 유만주는 『흙영』이 자신의 의도나 계획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일기를 위한 애도문에 해당하는 마지막 서문을 썼다. 먼저 그는 자기 일기에 ‘일생의 유일한 대문헌’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자신의 마음

10) 嗚呼! 人之作意制事, 惡可以安排爲哉! 始余之記日也, 務博而不務簡, 要鉅而不要畧, 擬部以六十, 擬卷以一千, 以徵余之心在是, 余之行在是, 余之言在是, 余之藝文在是也, 而藝文之短長, 言之純疵, 行之得失, 心之正偏, 咸稽焉, 于以旁及乎古今華夷之事文而無不該載, 蓋爲余終身之一大文獻也. 余有子曰元視, 生而粹清, 有志有行有質有文, 余甚可之. 顧余行無足以爲師, 言無足以爲訓, 而藝文無足以爲遺, 遺之此, 將俾爲博聞多識之助, 原其所遺也, 雖愧於古昔先民, 視夫奴婢之衿, 田畝之分, 銀珠器玩之遺, 則其猶賢矣. 故余于記日之政, 罔敢怠焉, 蓋不彙從吾所好而已也. 維余不仁不智, 行負神明, 禍中嗣胤, 于是歲之夏, 視以疾而殤, 號呼錯莫, 靡質靡訴, 既哭而思曰: ‘兒死矣, 書無可以傳矣. 書無能平章刪潤之以就整頓矣, 書可以止矣. 不止則余眞不仁矣, 余眞不智矣.’ 乃爲文矢告柩前. 嗚呼! 擬部六十, 而乃終以十三部; 擬卷一千, 而乃限以二百秩, 亦無心整理書出以示人. 人之作意制事, 果其可以安排爲哉!(유만주, 『欽英稽徵元本丁未支部敘』, 『흙영』 24책, 영인본 제6책 553면)

과 행위와 문예를 이 저술에 남겨두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근거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대문헌의 계획과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까지 수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일기쓰기를 결산했다. 즉 60부 1천 권에 달하는 거질의 저술을 구상했으나 이제 13부 200권으로 그친다고 밝힌 것이다.

그가 제시한 ‘13부 200권’이라는 정보는 현전하는 『흙영』의 서지사항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먼저 13부는 그가 일기를 쓴 햇수인바 실제로 『흙영』은 을미부(乙未部, 1775)부터 정미부(丁未部, 1787)까지 모두 1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0권은 일기를 쓴 달의 수를 훨씬 상회한다. 현전하는 『흙영』을 구성하는 개월 수는 모두 161인데, 12달이 13번 거듭된 것에 을미부(윤10월), 무술부(戊戌部, 1778, 윤6월), 신축부(辛丑部, 1781, 윤5월), 갑진부(甲辰部, 윤3월), 병오부(丙午部, 윤7월)의 윤달 5달을 더한 결과다. 이처럼 일기를 쓴 개월 수는 유만주가 추산한 저술의 권수에 못 미치는데, 나머지 39권은 아마도 실전(失傳)하는 『흙영』 별부(別部)를 비롯한 일기의 부속 원고를 합한 권수가 아닌가 한다.<sup>11)</sup>

청년기의 유만주는 자신의 기대수명을 80세로 계산했고,<sup>12)</sup> 그에 따라 일기 쓸 시간이 60년 남았다고 내다보았다. 그 60년 동안 1천 권의 일기를 채워나갈 계획이 그에게는 이미 세워져 있었으나 결국 13년 동안 200권을 쓰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일기쓰기를 그만두며, 그는 계획의 1/5 가량을 실행했다고 자신의 저술 활동을 결산했다.

유만주는 아들 구환이 자신의 유일한 저술인 일기의 첫 독자가 되리라는 희망을 걸고 거의 혼자만의 글쓰기를 13년간 이어 왔다. 그 희망이 배반된 지금, 인생이란 본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거듭 확인하고

11) 유만주는 1784년 무렵부터 讀書節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초록한 별부를 설정해 두었던바, 어떤 책을 읽었다는 행위는 일기에 기록하고, 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부를 보라’(見別部)는 협주를 표시하고 있다. 유만주는 일기를 初本과 元本으로 나누어 적고 있는데 초본은 초고에 해당하고 원본은 그것을 1차로 정돈하여 필사한 것이다. 현전하는 『흙영』의 월별 표제에는 ‘元本’이라는 말이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다. 유만주는 『흙영』이 초본과 원본, 別本으로 구성된다고 일기 안에 쓰고 있는데 그 중 별본이 별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한편 유만주의 부친 유한준(1732~1811)과 모친 순흥안씨(1733~1821), 양모이자 백모인 청구한씨(1720~1809)가 모두 80세를 넘겨 장수했던 점이 참조된다.

‘일기를 더 이상 이어나가는 건 바보짓’이라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된 아들을 잃은 슬픔은 물론, 일기쓰기에 대한 무한한 애착,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 만큼의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다.

기대를 저버린 적이 많았던 삶을 버티는 방편이 되었던 일기쓰기를 놓게 된 이 지점에서, 그는 아들을 위한 상복을 공식적으로 벗는 날인 1787년 12월 1일까지, ‘자신이 좋아하던 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들을 위해 일기를 쓰기로 했다. 그것은 그가 구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그러나 그가 정미지부(丁未支部)의 서문에서 탄식했듯, 인생은 언제나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계획대로라면 유만주는 1787년 12월 1일 삭전(朔奠: 喪家에서 음력 초하룻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을 지내고 제문을 읽고 상복을 벗은 후 일기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예정에 따라 유만주는 삭전에서 읽을 제문을 그 며칠 전인 11월 26일에 미리 써 두기도 했었다. ‘하늘이 내린 빼어난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여전히 밥을 먹고 숨을 쉬며 피와 살이 존재하고 한가히 벗을 마주하고 그곳이 나날을 보내고 헛되이 문자를 써서 부연하고 고사(故事)를 수식하며 글쓰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며<sup>13)</sup> 살아서 글을 쓰는 자신을 책망하고 부끄러워하는 이 제문이 7개월간 지속된 그의 삶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그는 그 사이의 일기에서 살아 있음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문학에서 위안을 얻으며 어떻게든 살아 보려 애썼고, 동시에 아들이 죽고 나서도 변함없이 글을 쓰고 읽는 자신을 ‘모진 인간’이라며 부끄러워했다. 본디 그는 ‘죽어서 아쉬울 일이라곤 오직 글을 쓰지 못하는 것밖에 없다’고 되뇌던 사람이었다.<sup>14)</sup> 그렇게 평생 거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삶의 방법이 되었던 문학을 단번에 버리지 못해, 아들의 죽음 뒤로도 관성적으로 ‘글쓰기’를 향하는 제 모습을 그는 7개월간 수치스러워했다.

결국 12월 1일 유만주는 자책과 수치심으로 점철된 그 제문을 읽지 못하고 계획대로 마지막 일기를 쓰지도 못했다. 이날 계획된 삭전을 올리지 못

13) ○草製告殤之文。“丁未十二月甲午朔朝，中殤之服，滿月將除，因朔奠，略具文字，以告亡兒靈帛之前曰：(…)天出有意，人爲闕之，在我逾分，鬼神奪之，猶然食息，血肉存在，晏對朋游，恬送朔晦，徒演文字，修飾故事。(1787.11.26.)

14) ○死了可恨，止不文耳。(1783.3.7.)

할 정도로 몸이 아팠던 탓에, 아들에 대한 애도의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그는 12월 14일에야 비로소 ‘달 그림을 끊어버리고 마음의 붉은 눈송이가 그치도록’이라고 일기의 맺는말을 썼다.

### III. 마지막 일기에 앞선 마지막 목록의 풍경

#### 1. 유만주의 목록 만들기

유만주는 뜻대로 일기를 마치지 못한 12월 1일을 비워 두지는 않았다. 이날 유만주는 ‘병 때문에 상복을 벗지 못했다’고 밝혔다.<sup>15)</sup> 그러고는 죽은 아들과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긴 ‘목록’ 하나를 붙씩 적었다.

유만주의 일기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목록들은<sup>16)</sup> 마음 같지 않은 삶을 버티게 하는 일종의 버킷리스트로서 일차적 의미를 갖는다.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은 삶을 제 의지대로 이끌기 위한 그의 방편 중 하나가 ‘계획’이었는데, ‘계획 세우기’는 많은 경우 목록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한대(漢代)의 예서(隸書), 계화(界畫)<sup>17)</sup> 양식과 지도까지 포괄하는 독특한 서화 취향의 소유자 유만주는, 대규모의 곡병(曲屏)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하며 <120국 대지전도>(百二十大地全圖)를 필두로 그 안에 넣고 싶은 100여 폭 서화의 목록을 만든 적이 있다.<sup>18)</sup> 한편 그는 삼교회통(三敎會通)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학자이자 문인의 견지에서, 이탁오와 왕양명, 시내암, 김성탄 등을 포함해 주목할 만한 72명의 사상가 및 작가를 뽑아 『흙영만선』(欽英漫選)이라는 책을 기획하기도 했다.<sup>19)</sup> 또한 무엇보다 세상의

15) 初一日甲午。○以病未除殤服。(1787.12.1.)

16)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欽英』과 『顛齋亂葉』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호, 2010.

17) 界畫란 자 등의 보조기구를 써서 궁궐과 전각 등의 건물을 정밀하게 그리는 기법을 일컫는 말이다. <정명상하도> 같은 것이 계화에 해당한다. 계화에 대해서는 이성미,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대원사, 2000) 26~30면을, 유만주의 계화 취향에 대해서는 김하라, 『유만주의 『흙영』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207면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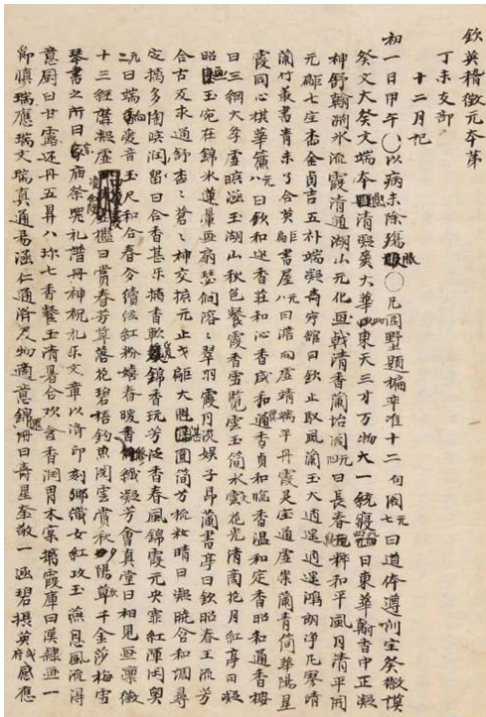
18) ○夜擬曲屏書畫, <百二十大地全圖>, <坤輿圖>, <左海圖>, <西湖圖> (…)<紅白梅圖>, <古董圖>.(1783.11.15.)

19) ○擬編訂七十二氏之書, 稱『欽英漫選』. (…)<卓吾氏之書, 蘇門氏之書, 陽明氏之書, 耐菴氏之

모든 책을 욕망하는 독서가로서, 유만주는 자신이 본 책과 보고 싶은 책의 목록을 계속 갱신하며 대규모의 총서 기획을 지속했다. 『삼재만물대일통』(三才萬物大一統)이라는 대규모 총서로 귀결되는 이 계획은 당시 동아시아에 존재하던 도서를 포괄하고 분류하는 학적 방식으로서의 목록학과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이다. 이런 면에서 ‘목록’은 폭넓은 독서가이자 독특한 예술적 취향을 아우르는 인문학자로서 그가 일생 추구한 도서의 편찬 계획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도 하다.

크게 보아 얇에 대한 무한한 열망이나 심미적 이상을 향한 상상력이 현실의 결핍과 만난 결과로서, 유만주는 사는 동안 많은 목록을 만들었다. 그

런데 일기를 맺기로 예고했으나 그리 하지 못한 12월 1일에 한 일이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음은 의미심장하다. 이 행위가 어떤 면에서 그의 궁극적 열망을 함축하고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그 목록의 제목 ‘원서(園墅)의 제편(題編)’은 유만주의 열망에 접근하는 단서로서 주목된다. ‘원서’란 노닐고 휴식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는 본택(本宅)과 별도로 지은 원림주택을 의미하는 말로서 ‘별서(別墅)’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제편’은 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사이에 해당 건물



<도판> 『흥영』 1787년 12월 1일조, 두 번째 화제로 園墅題編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의 명칭을 써서 걸어 두는 액자를 일컫는 말인데 ‘편액’(扁額)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유만주가 마지막으로 만든 목록은 정원이 딸린 저택을 구성하는 건축물과 자연물의 이름을 포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해당 목록에 함축된 유만주의 열망이 공간적 특성을 지향함을 가리키게 된다.

한편 유만주의 공간을 구성하는 사물에 해당하는 213개의 이름들이 ‘편액’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이 목록을 이해하기 위해 ‘조경’이라는 실용학문의 분야를 참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통 조경 분야에서 편액은 정원의 주인이 자연과 교감하여 얻은 예술적 심미와 문화적 소양이 문자로 표상된 결과로서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실제 이 목록을 구성하는 항목인 213개의 ‘편액’들은 다음의 21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閣), 침(寢 침실), 합(閣: 규방), 관(館: 객관), 서옥(書屋: 글방), 염(簾: 주렴), 누(樓), 정(亭), 오(輿: 밀실), 당(堂), 함(檻: 난간), 주(廚: 주방), 고(庫: 창고), 단(壇), 향(巷: 골목), 교(橋: 교량), 수(水: 물), 송(松: 소나무), 문(門), 주(洲: 물. 대륙), 벽(壁: 절벽)

위와 같이 인공적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자연 지형 및 자연물이 일부 더해졌다. 이 21개의 범주는 그에 해당하는 하위항목을 이끌고 있는데, 항목마다 개별적으로 부여된 고유명사가 바로 편액이므로, 그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범주를 설정한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음 장에서는 각각의 범주 및 하위항목을 저본에 준해 제시하고 분석하여 유만주의 마지막 목록인 ‘원서 편액’의 취지에 다가가도록 한다.

20) 함광민, 「편액을 통해 본 중국 출정원의 의미와 공간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권 4호, 2017. 한편 유만주의 문학세계를 조경과 관련하여 논의한 선행연구로는 안대회, 「통원 유만주의 조경미학」,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집 1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이 주목된다. 안대회 교수는 이 논문에서 유만주에 대해 ‘조경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 2. 원서 편역의 목록이 만든 세계

유만주의 편역 목록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건축물의 부류는 ‘각’(閣)이다. 이 범주가 해당 목록 첫머리에 등장한 이유와 관련해, ‘높은 기단 위에 세운 건축물’로서,<sup>21)</sup> ‘궁궐이나 사찰 등에서 주요 구실을 담당하는 부속건물’이라는 ‘각’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sup>22)</sup> 즉 유만주가 목록으로 제시한 공간의 핵심 건물이라는 점에서 ‘각’은 우선 주목을 요하며, 이에 저마다의 명칭이 지시하는 내용을 통해 그 구체적 기능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 각(閣)원래 7개있음: 도체각(道體閣), 준훈각(遵訓閣), 보규각(寶揆閣), 휘모각(徽謨閣), 규문각(揆文閣), 대규문각(大揆文閣), 단본각(端本閣), 희청각(熙淸閣), 응상각(凝爽閣), 대화엄각(大華嚴閣), 동천각(東天閣), 삼재만물대일통각(三才萬物大一統閣)<sup>23)</sup>

제시된 ‘각’의 목록 중 ‘도의 본체’라는 성리학적 개념을 연상시키는 ‘도체’, ‘제왕의 문장’을 일컫는 ‘휘모’, ‘문교(文教)를 헤아려 다스린다’는 ‘규문’, 개인과 가정 및 국가의 근본을 바르게 한다는 ‘단본’ 등의 명칭은 이 건물들이 유가(儒家)의 학문과 문장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어 준다. 여기에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화엄’(大華嚴)이 추가되어 사상적 다양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희청’(빛나고 맑음)<sup>24)</sup>이나 ‘보규’(귀중한 규도) 역시 유가적 가치를 구현한 말로 추정되는바 ‘각’의 명칭은 유가적 가치 지향에 기울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목록 작성자의 학문적, 사상적 지향을 내포한 이 건물들의 실제

21) ‘각’(『건축용어사전』, 대한건축학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72124&cid=67350&categoryId=67350>

22) 궁궐 안의 전당이나 누각을 의미하는 ‘각’은 중국 고대 원림에서 중요한 건축물에 속한다. 박경자, 『중국의 정원』, 학연문화사, 2010. 210면.

23) 閣元七曰: 道休, 遵訓, 寶揆, 徽謨, 揆文, 大揆文, 端本, 熙淸, 凝爽, 大華嚴, 東天, 三才萬物大一統.(1787.12.1.) 원문의 작은 글자는 저본에도 작게 표시되어 있다. 이는 해당 구절(元七)이 夾註로서 문장성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하 같다.

24) 희청: 이와 관련해서는 경복궁 선원전 서쪽 담장의 ‘淸熙門’이라는 명칭이 참조된다. 이 이름은 『시경』 『維淸』의 ‘淸명하게 이어 밝힌 것은 / 문왕의 법도다’(維淸緝熙, 文王之典)에서 취한 것이다.

기능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삼재만물대일통’이라는 이름이 단서가 된다. ‘천지와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의 만물을 아우른다’는 의미의 이 말은 유만주가 일찍이 자신이 계획한 총서의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그의 백과전서적 지향을 보여준다.<sup>25)</sup> 마지막 목록을 만들기 3년 전, 30세의 유만주는 『삼재만물대일통』에 속할 내용을 경(經), 사(史), 자(子), 집(集), 예(藝), 설(說), 현(玄: 道家), 축(竺: 佛家)의 8분야로 분류하는 한편, 책의 자양(字樣)은 『열조시집』(列朝詩集)처럼, 글자 크기는 석각본(石刻本)처럼, 두께는 『회함』(彙函: 『諸子彙函』)처럼 하되 20권을 1갑(匣)으로 삼겠다는 등 실제 인쇄하고 제책할 경우를 상정한 세부사항까지 고려하여 120갑 1거(車)의 대규모 총서를 기획했으며,<sup>26)</sup> 그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이 총서만을 온전히 보관할 장소로서 ‘삼재만물대일통각’을 생각한 적이 있다.<sup>27)</sup> 이에 목록 중의 ‘삼재만물대일통각’은 그의 기존 계획을 계승한 것으로, 유만주가 희망한 대규모 총서를 위한 장서각의 편액이라 이해된다. 기타의 편액도 대체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학문 분야와 연관된 장서각으로 보이는데, 이 점과 관련해 31세의 유만주가 이어 나갔던 다음 계획이 참조된다.

이제 나의 장서각에 ‘예문함저(藝文涵邸)’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속에 제왕의 문장, 사부(四部)의 책, 서화(書畫), 지도, 사전류, 족보, 시사(詩詞), 유서(類書), 총서(叢書), 우리나라의 문헌, 다른 나라에서 엮은 기록, 임화(臨華)에서 별도로 편찬한 책, 이단(異端), 설가(說家) 등 15부문으로 나눈다. 휘모각(徽謨閣), 준훈각(遵訓閣), 경성각(敬省閣), 단본각(端本閣), 정치각(定治閣), 숙상각(肅爽閣), 함휘각(涵彙閣), 숭란각(崇蘭閣), 흠문각(欽文閣), 패형각(佩馨閣), 응통각(凝通閣), 남고각(攬古閣), 숭영각(崇英閣), 이청각(摛淸閣), 삼재만물대일통각(三才萬物大一統閣)을 세워서, 이 15개의 누각(樓閣)에 책들을 각각 나누어 보관한다. 그러면 서적을 보관한 것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룰 것이니, 어찌면 업후(鄴侯)의 3만 권 장서에 버금가고, 금루자(金樓子)의 8만 권 장서에 견주며, 장석림(蔣石林)의 10만 권 장서에 필적할 수 있어 한 번의 의미 있는 행위를 펼치기에 충

25) 한편 李植의 실전하는 저술 중 『三才萬物錄』이 있는데 이는 천인성명의 이치를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三才萬物大一統』句, 要目如金陵板序, 字如『列朝詩集』, 大如石刻, 薄如『彙函』, 二十卷爲一匣, 百二十匣爲一車. 可分八大類, 曰經, 曰史, 曰子, 曰集, 曰藝, 曰說, 曰玄, 曰竺.(1784.1.19.)

27) ○夜擬有三才萬物大一統閣, 以貯『三才萬物大一統』.(1784.1.17.)

분할 것이다.<sup>28)</sup>

‘삼재만물대일통각’외에, ‘휘모각’과 ‘준훈각’, ‘단본각’이 장서각에 대한 기존의 기획을 계승한 것임이 확인된다. 그에 따라 목록으로 구성된 유만주의 세계 심장부에 위치한 건물이 대규모의 도서관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점은 기존에 알려진 열정적 독서가로서 그의 자아상과 부합하고 있어 흥미롭다.

핵심 건물인 ‘각’에 이어 둘째로 제시된 범주는 ‘침’(寢)이다.

(2) 침(寢)원래 4개였음: 동화침(東華寢), 한향침(翰香寢), 중정침(中正寢), 응신침(凝神寢), 서한침(舒翰寢), 연빙침(淵冰寢), 유하침(流霞寢), 청통침(淸通寢), 호산침(湖山寢), 원화침(元化寢), 화극침(畫戟寢), 청향침(淸香寢), 난대침(蘭臺寢)<sup>29)</sup>

위에 제시된 13개의 편액은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잠을 자고 쉬는 공간으로서 ‘침’(寢)에 요구하는 바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그는 이 방에서 ‘동창이 밝아 오는 것’(東華)을 보며 아침을 맞고, 저녁에는 ‘흐르는 노을’(流霞)을 보았으면 한다. 그는 무엇보다 이 공간에 바람이 잘 통하고 쾌적하길 원했는데, ‘맑고 툭 트임’(淸通), ‘맑은 향기’(淸香),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蘭臺)<sup>30)</sup> 등의 명명이 그런 점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산과 호수’(湖山)에 대한 동경을 간직하고 있는 이 침실의 주인은 자신의 개인적 공간이 ‘造化(造化)의 위대한 작용’(元化)을 표상하기를 바라는데 이 명명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나 공간의 분위기에 상응한다. 이처럼 채광, 밖으로 보이는 풍경, 통풍, 전체적 분위기와 미의식 등의 요건을 고려한 외에, ‘그림으로 장식한 창’(畫戟) 같은 이름은 경호원이 지키는 안전한 장소에 대한

28) 今以藝文涵邸建名，而中分宸藻四部，書畫輿圖字書譜牒詩詞類書叢書東邦文獻異國編記臨華別纂異端說家十五部。起徽謨遵訓敬省，端木定治肅爽涵爽崇蘭欽文佩馨凝通攬古崇英，摛淸三才萬物大一統，十二閣各以類貯，爲載籍之鉅觀，或準鄴侯之三萬，或擬金樓之八萬，或敵石林之十萬，恰爲一番作用。(1785.5.12.)

29) 寢元四曰：東華，翰香，中正，凝神，舒翰，淵冰，流霞，淸通，湖山，元化，畫戟，淸香，蘭臺。(1787.12.1.)

30) 蘭臺：이 말에는 ‘초나라 襄王이 지은 蘭臺宮’과 ‘한나라 때의 도서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뜻으로 보아 ‘시원한 바람’이라 해석했다. 초 양왕은 이곳 난대궁에서 송옥과 노닐며 시원한 바람을 쐬 적이 있다. 이 때 송옥이 쓴 글이 『風賦』이다.

욕구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공간에서 그 주인은 ‘치우침 없이 곧고 올바르며’(中正) ‘깊은 연못과 얼음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신중함’(淵氷)<sup>31)</sup>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해 깊이 생각에 잠기기’(凝神)<sup>32)</sup>를 원한다. 아울러 ‘문한(文翰)의 향기’(翰香)나 ‘문한을 펼쳐 나감’(舒翰)과 같은 이름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공간에서 하려는 주된 활동이 글쓰기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아침 햇빛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쾌적한 개인적 공간에서 혼자만의 글쓰기에 몰두하는 주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3) 합(閣)원래 4개였음: 장춘합(長春閣), 순수합(純粹閣), 화평합(和平閣), 풍월합(風月閣), 청평합(淸平閣), 개원합(開元閣)큰 편액, 칠보합(七寶閣), 올금합(鬱金閣), 정길합(貞吉閣), 오복합(五福閣), 단응합(端凝閣), 수녕합(壽寧閣)<sup>33)</sup>

세 번째로 제시된 ‘합’(閣)은 본디 ‘규방’, 즉 여성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나, 이 공간의 기획자는 이곳이 ‘내외가 통용하는 장소’, 즉 남녀의 공용 공간이라 규정한 바 있다.<sup>34)</sup>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합’은 ‘새로운 시작을 열기’(開元)에 걸맞도록 ‘곧고 길하며’(貞吉)<sup>35)</sup> ‘단정하고 장엄한’(端凝)<sup>36)</sup> 삶의 태도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곳의 주조(主調)를

31) 淵氷: 깊은 못에 임하거나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신중히 하라는 경계이다. 『시경』 「小旻」의 “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에서 유래한다.

32) 凝神: 정좌하여 기를 한 곳에 모으는 도가의 수련법으로 고도의 정신 집중을 표현한 말이다. 『장자』 「逍遙遊」에서 “신묘한 정신의 작용이 응집되면 모든 사물을 상쳐 나거나 병들지 않게 성장시킨다”(其神凝，使物不疵癘)고 했고, 같은 책 『達生』에는 “마음을 쓰기를 분산하지 않아야 비로소 정신이 집중된다”(用志不分，乃凝於神)는 말이 보인다.

33) 閣元四曰: 長春，純粹，和平，風月，淸平，開元巨匾，七寶，盞金，貞吉，五福，端凝，壽寧。(1787.12.1.)

34) ○五福開元風月三閣也，合藝藝涵二邸也。凡稱閣者，皆內外通用之所也，凡言邸者，賓主通會之室也。(1786.1.9)

35) 貞吉: 『주역』 「遯卦」의 “아름다운 은둔이니, 바르므로 길하다”(嘉遯，貞吉)는 구절이 참조된다. 한편 유만주는 1777년 부친 유한준이 군위 현감으로 부임했을 때 곁에서 모시며 지냈는데, 당시 머물던 冊房에 ‘정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는 ‘여행 중에 바르므로 길하다’라는 『주역』의 象辭를 가져온바 임시거처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名內冊曰貞吉。旅之象曰：旅貞吉。程傳曰：‘得旅之真正而吉也。’ 朱義曰：‘能守其旅之貞則吉，旅者非常居也。’”(1777.10.7.)

36) 端凝: 중국 자금성의 부속 전각으로 ‘端凝殿’이 있어 참조된다.

이루는 것은 ‘순수’(純粹), ‘화평’(和平), ‘청평’(淸平), ‘장춘’(長春: 언제나 봄날)이라는 이름들로 그 주인인 이상적인 부부의 이미지를 표상하며, 여기에 ‘바람과 달의 풍경’(風月)이라든가 ‘아름다운 칠보 장식’(七寶), ‘울금의 향기’(鬱金)<sup>37)</sup>와 같은 경제적 유족함에서 오는 미의식이 더해진다. 그리고 ‘오복’(五福)과 ‘수녕’(壽寧)이라는 이름을 통해, ‘합’이라는 공간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행복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해진다.

(4) 관(館): 흡지관(歙止館), 어풍관(馭風館), 난옥관(蘭玉館), 대소요관(大道遙館), 소요홍랑관(逍遙鴻朗館), 정계료청관(淨几寥淸館), 난죽총서관(蘭竹叢書館), 청미료관(淸未了館), 합영관(合英館)<sup>38)</sup>

넷째 공간인 ‘관’(館)은 객관(客館), 즉 방문객이 머무는 장소로 보인다.<sup>39)</sup> 그리고 이 공간의 특성과 이곳에 오는 손님의 형상을 추측하는 데 단서가 되는 것이 ‘큰 편액을 달아야 한다’고 협주로 표시한 ‘합영’(合英)이라는 이름이다. 이 표시는 ‘합영관’이 ‘관’의 대표 건물임을 알려준다.

이 목록을 만들기에 앞서, 29세의 유만주는 좌우 각각 12관(館)으로 구성된 ‘합영저’(合英邸)라는 공간을 구상한 적이 있는데,<sup>40)</sup> 천하의 빼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반영한 이 이름은 그의 자호 ‘흡영’(歙英)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이후 합영저의 상상을 이어나가던 32세의 유만주는 “‘저’(邸)란 손님과 주인이 통하고 만나는 공간”이라는 규정을 더했고,<sup>41)</sup> 그러한 공간적 특성과 이름을 계승해 ‘합영관’을 목록에 적었다.

학문적으로 뜻이 맞고 본받을 만한 벗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관’의 다른 이름들은 ‘지란옥수’(芝蘭玉樹)와 같은 우수한 자제’와 같이 그곳에

37) 鬱金: 韓渥의 시『五更』중의 “왕년에 울금향 침상을 기약하고 / 한밤중에 규방에 몰래 들어갔지”(往年曾約鬱金牀, 半夜潛身入洞房)라는 구절을 떠올린다면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는 말이다.

38) 館曰: 歙止, 馭風, 蘭玉, 大道遙, 逍遙鴻朗, 淨几寥淸, 蘭竹叢書, 淸未了, 合英巨扁. (1787.12.1.)

39) 박경자, 앞의 책, 197면. “관의 본뜻은 빈객을 접대하는 집이다.”

40) ○合英邸, 分左十二館右十二館, 中起大樓, 扁因邸號.(1783.6.8.)

41) ○五福開元, 風月三閣也, 合英藝涵二邸也. 凡稱閣者, 皆外內通用之所也, 凡言邸者, 賓主通會之室也.(1786.1.9.)

모인 인물의 형상을 환기하는 ‘난옥’(蘭玉)과 같은 것도 있고, ‘깨끗한 책상이 있는 고요하고 맑은 곳’을 의미하는 ‘정쾌료청’(淨几寥淸)이나 ‘난초와 대나무와 책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난죽총서’(蘭竹叢書)처럼 그 공간 내부의 풍경을 그려낸 것도 있다. 그 외 ‘공경하며 머문다’는 ‘خم지’(欽止)나 ‘바람을 타고 노닌다’는 ‘어풍’(馭風), ‘광대한 세계를 거닐다’라는 뜻의 ‘대소요’(大逍遙),<sup>42)</sup> ‘너르고 맑은 곳을 거닐다’라는 뜻의 ‘소요홍랑’(逍遙鴻朗)은 삼갈 줄 아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원하고 자유롭게 도가(道家)의 정신적 소요를 즐기는 학문적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끝없는 푸르름’이라는 뜻의 ‘청미료’(靑未了)는 이 공간의 풍경을 그려내는 동시에, 시들지 않는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학문적 교유의 이상과 진리 탐구를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함축하기도 한다.<sup>43)</sup>

(5) 서옥(書屋)원래 8개였음: 담향서옥(澹向書屋), 허정서옥(虛靖書屋), 단평서옥(端平書屋), 단하서옥(丹霞書屋), 영보서옥(靈寶書屋), 통허서옥(通虛書屋), 숭란서옥(崇蘭書屋), 청간서옥(靑簡書屋), 화양서옥(華陽書屋), 성하서옥(星霞書屋), 동심서옥(同心書屋), 기화서옥(棋華書屋)<sup>44)</sup>

다섯째인 ‘서옥’(書屋)은 ‘글방’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서는 개인의 공부방을 의미한다. 제시된 것 중 ‘텅 빈 곳으로 통한다’는 뜻의 ‘통허’(通虛), ‘역사를 존중한다’는 뜻의 ‘숭란’(崇蘭), ‘별과 노을’이라는 뜻의 ‘성하’(星霞)는 유만주가 실제로 자신의 공부방에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유만주는 1777년 늦가을, 부친의 임지인 군위현에 머물 때 우거하던 장소를 ‘성하서옥’이라 불렀다.<sup>45)</sup> 그는 이듬해인 1778년에도 군위현에 있었는데, 이때는 자신의 공부방을 ‘통허서옥’(通虛書屋)이라 일컬었고<sup>46)</sup> 스스로를 ‘통허의사’(通虛外

42) 大逍遙: 거닐고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逍遙’는 도가적 개념이다. 李彥瑄이 『호동거실』의 한 구에서 노자를 일컬어 ‘大逍遙自在人’이라 표현한 적이 있다.

43) 靑未了: 학문 정진의 태도와 연관시켰을 때 이 말은 李滉의 유명한 시조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와 비슷한 지향을 갖게 된다.

44) 書屋元八曰: 澹向, 虛靖, 端平, 丹霞, 靈寶, 通虛, 崇蘭, 靑簡, 華陽, 星霞, 同心, 棋華.(1787.12.1.)

45) 季秋, 余來嶺外, 處星霞書屋, 讀三古之經.(유만주, 『欽英丁酉(1777)叙』, 『欽英』3책, 영인본 제1책 283면)

46) ○晨朝朝食而發, 踰光德峙, 過深川九盤岡路, 凡行四十里, 中火安溪. 行五十里, 秣馬桃李原,

史)라 부르기도 했다.<sup>47)</sup> 한편 ‘난대석실(蘭臺石室)을 존중한다’는 뜻의 ‘승란’은 역사가를 지향한 유만주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어 주목되는 이름인데, 이 역시 1778년 군위현에서 지은 것이다. 당시 그는 자신의 거처를 ‘승란각’이라 부르기로 한 데 대해 해명하며, 역사에 마음을 두고 있기에 ‘존중하고 애호하는 바가 역사서를 보관하는 서고인 난대석실에 있다’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sup>48)</sup> 위에 제시된 이름 중 역사서를 의미하는 ‘청간(靑簡)이 ‘승란’과 유사하게 역사학에 대한 지향을 담았다. 이에 더해 ‘신선이 마시는 붉은 노을’을 의미하는 ‘단하(丹霞)나 ‘신령스러운 보물’을 뜻하며 도교 경전 이름이기도 한 ‘영보(靈寶)는 도가적 지향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 송시열(宋時烈)을 일컫는 ‘화양(華陽)은 노론계의 정치 성향과 관련되어 보인다.

이처럼 서옥의 편액들은 역사학에 경도되어 있으며 도가적 지향도 일정 정도 지닌 노론계 학인으로서 유만주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 ‘담담함을 지향한다’는 ‘담향(澹向), ‘텅 비어 고요하다’는 ‘허정(虛靖), ‘단정하고 공평하다’는 ‘단평(端平), ‘하나 된 마음’이라는 뜻의 ‘동심(同心)은 이 서옥에서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과 관련되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화(棋華)를 통해 바둑과 같은 여가활동까지 고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염(簾)원래 8개였음: 흠화이향렴(欽和邇香簾), 장화심향렴(莊和沁香簾), 함화농향렴(咸和農香簾), 정화임향렴(貞和臨香簾), 온화정향렴(溫和定香簾), 소화통향렴(昭和通香簾)<sup>49)</sup>

여섯째로 제시된 ‘염(簾)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의 다섯 가지와 다르지만 두 공간 사이를 차단하는 한편으로 소통시키는 설치물이라는 점

蚤夕抵衙, 拜廟清理通虛書屋。(1778.9.2)

47) 유만주는 1778년 11월 21일 군위현의 승려 普訓에게 『능엄경』을 빌려 읽고 쓴 편지에서 ‘通虛外史’라 자칭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명년 봄에 상경하기 전에 만나 불교 이론에 대해 토론을 나누자고 청하기도 했다.

48) ○古人藏書之室, 多名以閣, 蓋取尊閣之義也. 余故名所居之室曰‘崇蘭閣’. 居也而閣之, 何? 左有書焉, 右有書焉, 前有書焉, 後有書焉, 余中處而爲書之根本, 所以閣之也. 曰‘崇蘭’何? 蘭臺石室, 史冊之府, 而心之崇好在是也. 心乎史冊, 則閣以崇蘭宜也. 古者以蘭號其起居者, 衆矣, 然未有取義于蘭臺石室如余之居也。(1778.9.30.)

49) 簾元八曰: 欽和邇香, 莊和沁香, 咸和農香香, 貞和臨香, 溫和定香, 昭和通香。(1787.12.1.)

에서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특성은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염 역시 여타의 다섯 가지와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염의 이름들은 ‘흠화이향(欽和邇香: 장중하고 온화하며 향기를 가까이 함), ‘장화심향(莊和沁香: 엄숙하고 온화하며 향기가 스며듦), ‘합화농향(咸和農香: 하나같이 온화하며 향기가 풍부함), ‘정화임향(貞和臨香: 곧고 온화하며 향기를 마주함), ‘온화정향(溫和定香: 따스하고 화평하며 향기가 변함없음), ‘소화통향(昭和通香: 밝고 온화하며 향기가 통합)이라고 하여 ‘온화함’과 ‘향기’를 포함하는 규칙성을 띤다. 이는 주림이 구성하는 공간이 온화하고 향기롭기를 바라는 명명자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유만주는 창을 열고 주림을 드리우는 일을 꼭 좋아했고, 그런 자신에 대해 ‘나에게는 염벽(簾癖)이 있다’고까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염’에 이름까지 붙여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것은 그의 이런 취향에 상응한다.<sup>50)</sup>

(7) 누(樓): 삼강대학루(三綱大學樓), 허광함옥루(虛曠涵玉樓), 호산추색루(湖山秋色樓), 찬하향설루(餐霞香雪樓), 남운옥간루(覽雲玉簡樓), 수문화광루(水文花光樓), 청상화월루(淸商花月樓)<sup>51)</sup>

일곱째인 ‘누(樓)부터는 주로 원림의 조경과 관련된 시설로서, 가정 내의 실내공간을 구성했던 앞의 여섯 가지 범주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누’는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마루를 높이 올린 다락집으로,<sup>52)</sup> 제시된 편액들은 ‘텅 비고 툇 트인 옥빛 물’을 뜻하는 ‘허광함옥(虛曠涵玉), ‘호수와 산의 가을빛’을 뜻하는 ‘호산추색(湖山秋色), ‘노을을 먹고 눈꽃의 향기를 맡는다’는 뜻의 ‘찬하향설(餐霞香雪),<sup>53)</sup> ‘잔물결 무늬와 환하게 핀 꽃’을 의미하는 ‘수문화광(水文花光) 등 대부분 그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려낸다. 다만 ‘삼강대학(三綱大學)이라는 이름은 역사가의 지향을 지닌 유만주가 필생의

50) ○客問: “開窓隔簾, 何也?” 曰: “杜預有『左傳』癖, 王武子有馬癖, 陸羽有茶癖, 倪元鎮有潔癖, 吾則有簾癖。”(1782.5.9.)

51) 樓曰: 三綱大學, 虛曠涵玉, 湖山秋色, 餐霞香雪, 覽雲玉簡, 水文花光, 淸商花月。(1787.12.1.)

52) 박경자, 앞의 책, 210~213면.

53) 여기서 ‘눈꽃의 향기’는 매화나무의 풍경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香雪’은 흰 꽃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중국 蘇州의 玄墓山에 매화가 온통 만발한 풍경이 아름다워 이 산의 별명이 ‘香雪海’가 되었다 한 것이 참조된다.

목표로 삼아 저술해 나갔으나 미완에 그친 역사서의 제목인 ‘삼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구름을 보며 귀한 책을 본다’는 ‘남운옥간(覽雲玉簡)이나 ‘청상곡을 들으며 꽃과 달을 본다’는 ‘청상화월(淸商花月) 같은 이름은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누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운치 있는 한때를 그려낸다.

(8) 홍정(紅亭): 응소정(凝昭亭), 화옥정(畫玉亭), 완재정(宛在亭), 금빙정(錦水亭), 연훈화선정(蓮暈畫扇亭), 슬한정(瑟憫亭), 용용취우정(溶溶翠羽亭), 하월담오정(霞月淡娛亭), 자양란정(子昂蘭亭)

서정(書亭): 흠소춘왕정(欽昭春王亭), 유방합고정(流芳合古亭), 반구통서정(反求通舒亭), 울울창창정(鬱鬱蒼蒼亭), 신교확원정(神交擴元亭), 지과정(止戈亭) 큰 편액, 대괴담원정(大魁湛圓亭), 간혜소여정(簡兮梳妝亭)<sup>54)</sup>

여덟째인 ‘정’(亭) 역시 경관 감상을 위한 건축물이다. 주로 연회와 경관 조망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정’은<sup>55)</sup> 강학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sup>56)</sup> 위 목록에서 ‘정’을 풍류를 즐기는 곳인 홍정(紅亭)과 풍경을 보며 독서하기 좋은 곳인 서정(書亭)으로 이분한 점은 그러한 용도 구분에 상응한다.

홍정의 이름은, ‘환한 빛이 머문다’는 뜻의 ‘응소’(凝昭), ‘넒실대는 물결 위의 물총새’라는 뜻의 ‘용용취우’(溶溶翠羽), ‘노을과 달빛의 맑은 즐거움’이라는 뜻의 ‘하월담오’(霞月淡娛) 등 ‘정’이 소유한 경관과 관련된 묘사적 특징을 갖는 것이 우선 눈에 띈다. 다음으로 『시경』 『겸가』(蒹葭)에서 유래해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을 가진 ‘완재’(宛在)나,<sup>57)</sup> 『시경』 『기옥』(淇奥)에서 유래해 ‘장엄하고 굳센 모습’을 뜻하는 ‘슬한’(瑟憫),<sup>58)</sup> 조자양

54) 紅亭曰：凝昭，畫玉，宛在，錦水，蓮暈，畫扇，瑟憫，溶溶，翠羽，霞月，淡娛，子昂蘭，書亭曰：欽昭春王，流芳合古，反求通舒，鬱鬱蒼蒼，神交擴元，止戈巨扁，大魁，湛圓，簡兮，梳妝。(1787.12.1.)

55)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20면.

56) 박경자, 『한국의 정원』, 서교출판사, 2015. 39면.

57) 宛在：『시경』 『蒹葭』의 “긴 갈대 푸르네 / 흰 이슬이 서리가 되었네 / 바로 그 사람이 물 저편에 있도다 / 물길 거슬러 올라가나 / 길이 험하고 멀기도 하네 / 물길 따라 쫓아가려 하나 / 물의 가운데에 완연히 보이네”(蒹葭蒼蒼，白露爲霜。所謂伊人，在水一方，溯洄從之，道阻且長。溯游從之，宛在水中央)라는 구절이 참조된다.

58) 瑟憫：『시경』 『淇奥』의 “저 기수 모퉁이를 보니 /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도다 / 문채 나는 군자여 / 잘라 놓은 듯하고 다듬은 듯하며 / 쪼아 놓은 듯하고 간 듯하다 / 장엄하고 굳세며

(趙子昂: 趙孟頫)이 임모한 『난정서』(蘭亭序) 글씨를 연상케 하는 ‘자양란’(子昂蘭), ‘연꽃의 꽃무리가 그려진 부채’라는 뜻의 ‘연화화선’(蓮暈畫扇)처럼 갈대와 대나무, 난초, 연꽃과 같은 식물 요소를 포함하는 한편으로 시와 서화의 취향까지 드러내는 이름도 있다.

한편 ‘그림을 아로새긴 옥’을 뜻하는 ‘화옥’(畫玉)과 ‘비단과 얼음’을 뜻하는 ‘금빙’(錦氷)은 유만주의 상상과 추억을 계승한 이름으로 주목을 요한다. 먼저 그는 30세 때 상상 속 화옥정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다.

빼어난 바위 하나가 땅에 우뚝 솟아 높이가 수십 길인데 그 곁에 아무것도 볼  
어 있는 게 없어 모양이 홀로 선 봉우리와 같다. 흙은 하나도 섞여 있지 않고 바  
위 색은 푸르스름하게 흰데 층층의 모서리가 험준하고 깎아지른 듯해 사람이 더  
위잡아 올라갈 수 없다. 그 위에 파초 서너 포기 있다. 파초의 등치는 한 아름  
이나 되게 굵고 한 길 남짓 되는 큰 잎새는 초록으로 펼쳐져 푸르게 어리비친다.  
파초가 저 홀로 자라고 저 홀로 지니, 여기 다른 풀은 일절 없다. 봉해백(蓬海伯:  
상상세계 속 유만주의 별명)이 기이하게 여기고는 바위의 둘레로 못을 파니 못  
의 중심에 바위가 서 있게 되었다. 촉련(蜀蓮)을 심어 붉은 꽃무리가 물에 가득  
한데 바위와 파초의 그림자와 서로 어리비친다. 여기에 나란히 화옥정을 지어  
그곳을 마주하게 했다.<sup>59)</sup>

이에 ‘화옥정’이란 위에 그려진 오랜 상상 속 공간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옥정을 상상하던 해, 유만주는 정원이 아름다운 명동 집으로 이사를 했다.<sup>60)</sup> 이듬해 늦봄, 31세의 그는 층정(層庭: 층계식 정원)에 핀 백 모란을 보며 “봄은 꿈과 같고 밤은 바다와 같으며 달은 서리와 같고 꽃은 얼음과 같아 참으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시절이다”라고 마음에 드는 풍경 속의 사람이 된 청복(淸福)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sup>61)</sup> 석 달 후 이 풍경을

/ 빛나고 점잖도다 / 문채 나는 군자여 / 끝내 잊을 수 없다”(瞻彼淇澳，綠竹猗猗。有匪君子，如切如磋，如琢如磨。瑟兮僴兮，赫兮咺兮。有匪君子，終不可諼兮)라는 구절이 참조된다.

59) 有一秀石，拔地而聳，高數十丈，並無附麗，狀如孺峰，不雜一土，石色蒼白，層角峻削，人不可攀緣而上。上有芭蕉三四本，蕉身大皆合抱，葉大丈餘，舒綠映翠，自長自落。仍斷雜卉。蓬海伯異之，環石鑿池，池心而石立焉。種蜀蓮，紅暈滿水，與石蕉之影相映，齊設畫玉亭以臨之。(1784.6.4.)

60) 남촌 창동에 살던 유만주가 명동 집을 얻어 이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김대중, 『유만주의 가옥 구매』(『한국실학연구』 27, 2014) 참조.

두고 떠나게 된 시점에, 유만주는 그 백모란이 보이던 남쪽 창문에 ‘금빙호’(錦氷戶)라는 이름을 붙였다.<sup>62)</sup> 비단과 얼음처럼 정결하게 빛나는 흰 꽃이 피어난 달밤의 풍경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금빙정(錦氷亭)이 함축한 풍경은 바로 금빙호에서 보던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경관에 초점을 두었던 흥정의 이름과 달리, 서정의 편액은 학문적 태도와 관련돼 있다. ‘춘왕을 흠모하고 밝힌다’는 뜻의 ‘흠소춘왕’(欽昭春王)은 ‘춘왕정월’(春王正月)이 환기하는 역사서 『춘추』(春秋)를 학문적 대상으로 존중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반구저기’(反求諸己)와 ‘넓고 특 트인 안목’이 합쳐진 ‘반구통서’(反求通舒) 역시 모종의 학문적 태도를 함축한 이름이고, ‘벗과의 정신적 교감을 통해 근본을 확충해 나간다’는 뜻의 ‘신교확원’(神交擴元)도 동학(同學)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후세의 명성이 옛날과 부합한다’는 뜻의 ‘유방합고’(流芳合古) 역시 옛것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학문과 관련이 있는 말인데, 이는 특히 유만주의 장서인 문구 중 하나인바<sup>63)</sup> 학인으로서 예스러운을 흠모하는 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한편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풍경을 연상케 하는 ‘울울창창정’(鬱鬱蒼蒼亭)은 앞서 화옥정처럼 그의 상상세계에 이미 존재하던 이름이다. 30세의 유만주는 다음과 같이 그 풍경을 그렸다.

같은 계절의 나무 백여 그루를 섞어 놓았는데 모두 구름을 이고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등치는 서너 아름이나 되게 굵다. 온통 소나무, 소나무, 노송나무, 오동나무, 측백나무, 회화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이 나란히 서 있다. 그 아래는 초록 잔디가 깔려 있어 바둑판처럼 평평하다. 나무들은 모두 붉은 난간이나 혹은 푸른 돌난간으로 보호한다. 네모나게 추석(礎石)을 세워 누대를 만드는데 높이는 한 길 남짓 된다. 가운데 정자 하나를 두고 ‘울울창창(鬱鬱蒼蒼)’이라는 편액을 건다. 아래에는 ‘울창대(鬱蒼臺) 세 글자를 새기고 금빛 물감으로 채운다.<sup>64)</sup>

61) ○既夜，露月虛明，(…)于層庭賞白牡丹。思春如夢，夜如海，月如霜，花如水，政是人生無奈何時節。(…)○明月在霄，氷花在庭，而新書在案。今夜令人意殊玲瓏，自詔清福，疇云不宜。(1785.4.11.)

62) ○續名西隔曰鬱靑戶，以方玩綠陰也，南隔曰錦氷戶，以曾賞名花也。(1785.7.1.)

63) ○擬印書之石記，止當用三顆，上鎮傳家之記一方，中鎮姓名字章一方，下鎮‘流芳合古’一方。傳記方稜陽篆，名章豎稜細篆，流芳方稜陰篆，去平章少華湖山諸記。(1785.3.29.)

울울창창정은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로 높다란 나무들이 울창한 풍경을 소유한 정자다. 단 이곳을 학업의 장소인 서정에 포함시킨 것을 볼 때 이 공간의 기획자는 그곳에서 나무를 보며 책을 읽고 싶었던 것 같다.<sup>65)</sup>

(9) 오(輿)원래 2개였음: 단향애음오(端向愛音輿), 옥척화합오(玉尺和合輿), 춘몽속현오(春夢續絃輿), 홍분희춘오(紅粉嬉春輿), 난향수섬오(暖香修織輿), 응방회진오(凝芳會眞輿)<sup>66)</sup>

아홉째 범주에 해당하는 ‘오’(輿)는 깊숙한 밀실을 뜻하는바, 누정과 같은 원림의 조경 시설은 아니며 오히려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건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공간이 앞서의 여섯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점은 의문을 자아낸다. 우선 ‘오’의 편액은 ‘구석방에서 음악소리를 사랑함’(端向愛音), ‘봄은 연지분을 바른 이와 봄을 즐김’(紅粉嬉春), ‘따스한 향기와 길고 섬세한 손가락’(暖香修織), ‘질은 향기 속에 신선 같은 미인을 만남’(凝芳會眞)과 같이 펍 관능적인 성격을 갖고, 그 가운데 형상화된 아름답고 다정한 여성은 분명히 앞서 ‘합’에서 함께 생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정한 아내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요컨대 ‘오’의 기획자는 이곳에 아내가 아닌 익명의 여성을 만나고자 하는 은밀한 욕망을 담았고, 이 구석진 방을 앞서의 6가지 범주, 달리 말해 가정의 떼떽한 공간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 약간의 검열을 가하는 초자아의 작용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한다.

한편 ‘홀륭한 재주가 화합함’을 의미하는 ‘옥척화합’(玉尺和合)은 문학적 교류가 가능한 여성을 회구한 것이다. 후처 반남박씨(潘南朴氏)에게 교양이 없는 점을 늘 불만으로 여기던 유만주는 명말청초 문인인 전겸익(錢謙益)과 유여시(柳如是) 부부의 문학적 결속을 대단히 선망했는데,<sup>67)</sup> ‘옥척화

64) 混沌時木百餘木，皆盤雲參宵，大卽三四連抱，盡是松檜梧桐槐柳銀杏之屬，離立衍板，綠莎鋪其下，平如棋盤，木悉以紅欄干，或蒼石欄護之，坂四稜甃石爲臺，高可丈餘，中置一亭，扁曰鬱鬱蒼蒼，下刻鬱鬱蒼臺三字，填以金泥。(1784.4.29.)

65) ‘전쟁을 그친다’는 뜻의 ‘지과’(止戈)와 ‘으뜸가는 맑고 원만한’을 의미하는 ‘대괴담원’(大魁湛圓), 아직 의미가 자세히 고증되지 못한 ‘간혜소여’(簡兮梳杵)와 같은 이름들이 서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후고를 요한다.

66) 輿元二曰：端向愛音，玉尺和合，春夢續絃，紅粉嬉春，暖香修織，凝芳會眞。(1787.12.1.)

67) 김하라, 『유만주의 『전목제 연보』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합'은 그의 이런 결핍에 상응한다. 그리고 '봄 꿈속에,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있다는'는 뜻의 '춘몽속현'(春夢續絃)은, 장남 구환의 생모인 전처 해주오씨(海州吳氏)가 1773년에 출산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래, 유만주가 그를 평생 잊지 못한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요컨대 유만주의 목록에 설정된 이 밀실과 그 이름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현실의 결핍과 욕망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10) 당(堂): 상견화당(相見畫堂), 늑휘당(凜徽堂), 십삼경강당(十三經講堂), 응허능하당(凝虛凌霞堂)<sup>68)</sup>

열 번째 공간인 '당'(堂)은 별서의 중심 되는 곳에 남향으로 지어 정원 전체를 완상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일컫는다.<sup>69)</sup> '아름답게 꾸며진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는 '상견화당'(相見畫堂)<sup>70)</sup>이나 '13경을 강론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십삼경강당'(十三經講堂)을 보건대 이곳을 외부인을 만나고 강학을 수행하는 용도의 공개된 장소라 여겨진다. '위풍당당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늑휘당'(凜徽堂), '노을 너머 높다란 허공'을 뜻하는 '응허능하당'(凝虛凌霞堂) 등 건물 외관이나 해당 장소의 경관을 내포한 이름들도 비슷하게 공개된 성격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11) 함(檻): 상춘함(賞春檻), 방초함(芳草檻), 낙화함(落花檻), 벽오함(碧梧檻), 조어함(釣魚檻), 열운함(閱雲檻), 상추석양함(賞秋夕陽檻), 추천함(秋千檻), 금사함(金沙檻), 매설함(梅雪檻)<sup>71)</sup>

열한 번째인 '함'(檻)은 난간, 즉 그 곁에 서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다. 이에 '함'의 명명은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경물(景物)을 좇아 이루어지게 된다. '향기로운 풀'(芳草)과 '지는 꽃'(落花), '벽오동나무'(碧梧), '그네'(秋千), '금잔디'(金沙), '눈 내린 매화'(梅雪)가 그 난간에 기대면 보이는

68) 堂曰: 相見畫, 凜徽, 十三經講, 凝虛凌霞.(1787.12.1.)

69) 주남철,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81면.

70) '畫堂'은 채색 단청을 칠한 堂을 일컫는 말이다. 궁궐 안의 堂을 두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71) 檻曰: 賞春, 芳草, 落花, 碧梧, 釣魚, 閱雲, 賞秋夕陽, 秋千, 金沙, 梅雪. (1787.12.1.)

것들이다. 그 외 ‘봄 풍경을 구경’(賞春)하고 ‘물고기를 낚으며’(釣魚) ‘구름을 보고’(閱雲) ‘가을의 지는 해를 구경’(賞秋夕陽)하는 등 이 난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까지 포함한 이름들도 있다.

(12) 주(廚): 감로주(甘露廚), 환단주(還丹廚), 오정주(五鼎廚), 팔진주(八珍廚), 칠향주(七香廚), 찬옥주(餐玉廚), 청서주(淸暑廚), 합환주(合歡廚), 함향주(含香廚), 윤위주(潤胃廚), 목실주(木實廚), 이하주(摘霞廚)<sup>72)</sup>

열두 번째인 ‘주’(廚)는 부엌이다. 불가의 신령한 술인 암리타를 의미하는 ‘감로’(甘露), 도가에서 장생불사의 영약이라 일컫는 ‘환단’(還丹)<sup>73)</sup>과 ‘찬옥’(餐玉),<sup>74)</sup> 유가의 호사스러운 음식을 대표하는 ‘오정’(五鼎)<sup>75)</sup>과 ‘팔진’(八珍)<sup>76)</sup> 등, 그 명명법은 크게 보아 유불선 3교에 준해 구분된다. 이처럼 다양한 주방이 동아시아의 대표적 세 문화권에 따라 나뉘고 있는 데서, 이 공간의 설정에 음식문화라는 개념이 작동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외 ‘일곱 가지 향신료’(七香), ‘나무 열매’(木實) 같은 식재료를 주방의 이름으로 삼기도 하고, 또 ‘더위를 식히는 음식’(淸暑),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음식’(合歡), ‘향기를 머금은 음식’(含香), ‘위장을 윤택하게 해 주는 음식’(潤胃) 등 해당 주방의 주된 용도나 특성을 알려주는 이름도 보인다.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과 식견을 반영한 ‘주’의 편역은, 이 목록이 원림의 조경을 넘어 일상생활의 설계까지 향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13) 고(庫): 한예고(漢隸庫), 획일고(畫一庫), 절신고(節愼庫), 서응고(瑞應庫), 서문고(瑞文庫), 서진고(瑞眞庫), 통역고(通易庫), 함인고(涵仁庫), 통제고(通濟庫), 급물고(及物庫), 적의고(適意庫), 금환고(錦還庫)<sup>77)</sup>

72) 廚曰: 甘露, 還丹, 五鼎, 八珍, 七香, 餐玉, 淸暑, 合歡, 含香, 潤胃, 木實, 摘霞. (1787.12.1.)

73) 還丹: 도가에서 제조하는 장생불사약으로, 九轉還丹이라고도 한다. 아홉 번을 제련하여 만들었다는 丹藥인데, 이를 복용하면 3일 만에 신선으로 화한다고 한다.

74) 餐玉: 옥가루를 먹는다는 뜻인데 도가에서 신선이 되는 양생술 중 하나다.

75) 五鼎: 소, 돼지, 양, 물고기, 사슴 등 다섯 종류의 肉味를 갖춘 음식이라는 뜻이다. 토는 제사에 三鼎으로 하고, 大夫는 五鼎으로 했다 한다.

76) 八珍: 고대의 여덟 가지 조리 방법으로, 『예기』 『內則』에 따르면 “淳熬, 淳母, 炮, 擣珍, 漬, 熬, 糝, 肝膾”다.

77) 庫曰: 漢隸, 畫一, 節愼, 瑞應, 瑞文, 瑞眞, 通易, 涵仁, 通濟, 及物, 適意, 錦還. (1787.12.1.)

열세 번째의 ‘고’(庫)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주’와 같은 범주에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제시된 ‘한예고’(漢隸庫)는 한나라 때의 예서(隸書)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유만주의 일관된 서법(書法) 취향을 반영한 이름이다.<sup>78)</sup>

여타의 ‘고’는 대부분 이미 만들어 둔 유만주의 상상 속 창고를 계승한 것인데, 이를 통해 그가 필요로 한 물질적 재화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홍도(鴻都)에 서응고를 두어 종이를 제조하고 서문고를 두어 먹을 제조하며 서진고를 두어 붓을 제조하도록 한다. 그러면 북쪽의 붓이 필요 없고 서쪽의 먹이 필요 없으며 남쪽의 종이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이 세 창고에서 가져다 쓰면 될 뿐이다.<sup>79)</sup>

‘홍도’(鴻都)는 28세의 유만주가 상상한 이상향의 이름이다. 이곳에 지필묵을 생산해 보관하는 창고인 서응고, 서진고, 서문고를 둔 데서, 일기를 쓰고 도서를 편찬하기 위해 무엇보다 문방구가 절실했던 그의 상황이 짐작된다. 이렇게 ‘고’의 목록은 물질적 필요를 반영한 이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30세의 유만주는 창고에 대한 상상을 다음과 같이 이어 갔다.

○임화(臨華)에 함인고(涵仁庫)를 두어 혼례와 상례에 대비하고 궁급한 사람을 돕는다. 절신고(節愼庫)를 두어 원향(元餉: 끼니)을 편안케 한다. 통제고(通濟庫)는 확원고(擴元庫)라고도 하는데 이로써 곡연(曲讌)과 예찬(禮饌)을 마련한다. 획일고(畫一庫)는 월지(月支: 달마다의 지출)를 담당한다. ○통역박(通易舶)은 창해를 다닌다. 통역거(通易車)는 북륙(北陸)으로 간다. 통역고(通易庫)는 임화에 있다.<sup>80)</sup>

지필묵 창고를 보유한 이상향의 이름 ‘홍도’가 ‘임화’(臨華)로 바뀌었음이

78) 유만주는 서법에서 호고 취향을 보인바, 篆書와 隸書를 선호했다. 현재 그의 일기 『흙영』의 표지 글씨가 전서인 것은 그런 취향의 반영이다. 한편 예서의 경우 고졸한 미의식이 구현된 한예를 유독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9) 鴻都有瑞應庫製紙, 瑞文庫製墨, 瑞眞庫製筆, 筆不須北, 墨不須西, 紙不須南, 惟於三庫而已。(1782.10.16.)

80) ○臨華有涵仁庫, 以濟婚喪周窮急, 節愼庫以佚元餉, 通濟庫, 一名擴元庫, 以辦曲讌禮饌, 畫一庫以月支. ○通易舶滄海也, 通易車北陸也, 通易庫臨華也。(1784.5.9.)

눈에 띈다.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의 범위가 문방구를 넘어 가정 경제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이 식비 담당의 절신고, 한 달 생활비 담당의 획일고, 봉제사와 접빈객을 위한 통제고(=확원고), 혼례와 상례 및 어려운 친척을 돕기 위한 자금을 보관한 함인고 등의 설정에서 간취된다. 유만주가 그리는 공간의 이름이 ‘임화’가 되며 그의 이상향은 더욱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고’에서 보관하는 물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이 그에 상응한다. 게다가 선박으로 해외와 교역하고 수레로 북쪽 대륙과 통하는 활동을 수렴하는 ‘통역고’와 같은 창고는 ‘임화’라는 공간이 해외 무역과 같은 상황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유만주가 만들어어나가는 이상세계가 단순히 일상생활의 결핍에 반응한 데 그치지 않으며, 보다 광대한 범위의 유토 피아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단(壇): 수성단(壽星壇), 규단(奎壇), 경일단(敬一壇), 함벽단(涵碧壇), 섭영단(攝英壇) 섭영부(攝英府)라고도 함, 감응단(感應壇)<sup>81)</sup>

열네 번째인 ‘단’(壇)은 마당에 원형이나 방형으로 흙을 높게 쌓아올린 시설물이다. 이곳에 나무나 화초를 심기도 하는바 조경 시설의 성격을 갖는다.<sup>82)</sup> 노인성(老人星)을 뜻하는 수성(壽星)과 문장을 주관하는 별인 규성(奎星)을 이름으로 삼은 수성단과 규단, 그리고 천인감응(天人感應)의 뜻을 담은 감응단은 하늘을 향한 기원의 의미를 담은 일종의 제단(祭壇)이 아닐까 한다. 공경스럽고 전일한 마음가짐을 담은 경일단 역시 비슷한 취지일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푸른 하늘을 머금은 곳’이라는 뜻의 함벽단(涵碧壇)은 이 장소의 특 트인 경관을 상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빠어난 인재를 모아들인다’는 뜻의 섭영단(攝英壇)은 학인들이 야외 강단(講壇)에 모인 형상을 그려내는데, 명명법이 앞서의 ‘합영관(合英館)과 유사해 주목된다. ‘단’까지를 이 원림의 내부 시설이라 보아야 할 듯하다.

(15) 향(巷): 목련향(木蓮巷), 팔괘향(八卦巷), 담청향(踏靑巷), 우화향(藕花巷), 천

81) 壇曰：壽星，奎，敬一，涵碧，攝英或府，感應(1787.12.1.)

82) 주남철, 앞의 책, 87면.

마항(天馬巷), 눈록항(嫩綠巷), 운수항(雲水巷), 징회항(澄懷巷), 연류항(煙柳巷)<sup>83)</sup>

열다섯째 범주인 ‘항’(巷)은 ‘골목’ 혹은 ‘마을’을 뜻하는바 원림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일종의 지리적 범주에 속하는 말이다. 이에 ‘항’부터는 저택과 정원의 바깥을 둘러싼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에 해당되는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항’부터 마지막 범주인 ‘벽’(壁)까지는 지리지의 기술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경상도 상주목(尙州牧) 부분을 예로 들자면 ‘방리’(坊里), ‘성지’(城池), ‘산천’(山川), ‘궁실’(宮室), ‘학교’(學校), ‘단묘’(壇廟), ‘제언’(堤堰), ‘창고’(倉庫), ‘교량’(橋梁) 등 해당 지역의 인문지리 요소에 해당하는 항목이 상위 범주로 설정된 아래, 각 범주의 하위 항목인 고유명사가 나열되는 것이 기본 체제를 이룬다. ‘방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상주목을 구성하는 면(面)이 하위 항목으로서 나열된다.

방리: 내동면, 중동면, 외동면, 단동면, 단북면, 단남면, 단서면, 장천면, 내남면  
(…)<sup>84)</sup>

상주목의 방리에 대한 위 기술은 열다섯째 범주에서 ‘항’의 이름을 나열한 것과 양상이 흡사하다. 이와 같이 유만주의 마지막 목록 후반부가 지리지의 구성 방식을 닮은 것은 이 목록이 그리는 공간의 범위가 하나의 별서와 원림을 넘어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향한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요컨대 이 목록이 내포한 ‘상상의 지리지’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상상의 지리지에서 첫째 범주가 되는 ‘항’은 원림의 경계 바깥에 포진한 인근 주민들의 마을로 생각된다. ‘목련마을’(木蓮巷)과 ‘연꽃마을’(藕花巷), ‘파란풀밭마을’(踏靑巷)과 ‘새싹마을’(嫩綠巷), ‘버들안개마을’(煙柳巷) 등 식물 소재로 해당 장소의 경관을 표상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 ‘천마’(天馬)라든가 ‘구름과 물’(雲水) 같은 다른 자연요소를 가져온 것도 있다. 『주역』의 의미를 표상한 ‘팔괘항’(八卦巷)이나 ‘마음이 맑아지게 한다’는 의

83) 巷口: 木蓮, 八卦, 踏靑, 藕花, 天馬, 嫩綠, 雲水, 澄懷, 煙柳.(1787.12.1.)

84)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경상도4』, 흐름, 2009. 21~23면(원문은 같은 책 4~5면).

미를 담은 ‘징회항’(澄懷巷)은 장소에 인문학적 요소를 더한 명명법이다.<sup>85)</sup>

(16) 교(橋): 화리교(畫裡橋), 능소교(凌霄橋), 직취교(織翠橋), 조천교(朝天橋), 울충교(鬱葱橋), 소양교(昭陽橋), 금심교(琴心橋), 초망교(楚望橋), 응하교(凝霞橋), 획운교(劃雲橋), 두우교(斗牛橋)<sup>86)</sup>

열여섯째 범주인 ‘교’(橋)는 물 위 혹은 공중에 통행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다. 일반적인 지리지에 설정된 ‘교량’ 항목이 ‘교’의 인문지리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참조된다.<sup>87)</sup>

또한 조경과 관련하여 ‘교’의 이름은 주변 경관을 표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sup>88)</sup> 이 목록 중의 이름들 역시 ‘푸른 옷감을 짠 듯 울창한 숲’(織翠), ‘뻑뻑하게 우거진 수목’(鬱葱), ‘초나라 산천과 같은 이국적인 풍경’(楚望) 등이 다리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나타낸 것이 많다. 또한 ‘환히 비치는 햇빛’(昭陽), ‘길은 노을빛’(凝霞), ‘높은 하늘로 솟구침’(凌霄), ‘아침 하늘 / 하늘에 조회함’(朝天), ‘구름을 가름’(劃雲), ‘북두성과 견우성’(斗牛)과 같이 물보다는 하늘과 닿은 경관을 나타낸 예가 많은 데서, 이 다리들이 높은 공중의 구조물이 되리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편 ‘거문고 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의 ‘금심교’(琴心橋)는, 사람 사이의 정서적 소통을 환기하는 이름으로서 지음(知音)과의 연결을 회구하는 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속’이라는 표현에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화리교’(畫裡橋)는 유만주가 벗 임노(任魯)에게 써서 선물한 의원기(意園記: 상상 속 정원에 대한 기문)인 『인지동천기』(仁智洞天記)에도 보이는 이름이다.<sup>89)</sup> 그 글에서 ‘커다란 바위 사이를 잇는 화리교

85) ‘팔괘항’이나 ‘징회항’ 같은 명명법은 거주공간에 성리학적 의미를 담고자 했던 조선 선비들의 성향과도 맥이 닿을 듯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종득, 『성리학적 사유를 구현한 조선 선비의 집』(『남명학』 14, 2009) 참조. 한편 ‘팔괘항’과 같이 『주역』의 철학을 조경에 구현하고자 한 데 대해서는 홍형순, 『象數원리를 정원구성에 적용한 龍圖墅와 龜文園』(『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권 2호, 2012) 참조.

86) 橋曰: 畫裡, 凌霄, 織翠, 朝天, 鬱葱, 昭陽, 琴心, 楚望, 凝霞, 劃雲, 斗牛.(1787.121.)

87) 상주목의 경우 “교량: 북천관교, 남대교, 동술교, 양산지교”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교량이 나열되어 있다. 변주승 역주, 앞의 책, 48면.

88) 박경자, 앞의 책, 242~248면.

89) 『인지동천기』의 의원기적 특징에 대해서는 안대회, 앞의 논문 54~55면을, 『인지동천기』가

의 주변을 버드나무들이 쪽 에웠다'고<sup>90)</sup> 이 장소를 묘사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교' 역시 기존의 상상과 추억 등을 수렴해 유만주의 내면세계를 구성하는 이름이 된다.

(17) 수(水): 벽해자(碧海子)일명 동천침(東天浸), 만호(瓊瑚), 허명담일홍(虛明湛一泓), 운모계(雲母溪)일명 수계(繡溪), 야광지(夜光池)일명 창지(滄池), 무허박(無何泊), 태사천(太史泉), 심설간(沁雪澗), 회두폭(回頭瀑), 유방거(流芳渠), 비백소폭(飛白小瀑), 연로정(演露井)<sup>91)</sup>

열일곱째 범주인 '수'(水)에는 이 목록 속 산천에서 물이 이루는 각종 자연경관이 수렴되어 있다. 여기 속한 이름 중에도 유만주의 상상세계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 여럿 보인다.

○임화(臨華)의 물에 사계절마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봄에는 만호(瓊瑚), 여름에는 동해자(東海子), 가을에는 동천침(東天浸), 겨울에는 야광지(夜光池)라 한다. 돌레가 백여 리다.<sup>92)</sup>

32세 유만주가 '임화'라 부른 상상세계의 중심에는 돌레가 백여 리 되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sup>93)</sup> 한 호수에 부여한 네 이름은, 만호(瓊瑚) 빛의 봄 물이 일렁이고, 질푸른 동해에 맞먹는 여름 물결이 치며, 동쪽의 가을 하늘이 맞닿아 있고, 겨울 달밤에 환히 빛나는 이 장소의 사계절 풍경을 그리게 한다.

'수'의 목록은 '동천침', '만호', '야광지' 같은 이름을 계승하되, '텅 비고 환하며 한결같이 맑은 물'을 뜻하는 '허명담일홍'(虛明湛一泓), '운모석(雲母

벗 임노를 위해 쓴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김하라, 『유만주의 『흙영』 연구』(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 214~216면을 참조할 것.

90) 門前駕大石梁, 是名畫裏橋, 列柳環之。(俞晩柱, 『仁智洞天記』, 『通園文藁』 卷2)

91) 水曰: 碧海子一名東天浸, 瓊瑚, 虛明湛一泓, 雲母溪一名繡溪, 夜光池一名滄池, 無何泊, 太史泉, 沁雪澗, 回頭瀑, 流芳渠, 飛白小瀑, 演露井。(1787.12.1.)

92) ○臨華之水, 分錫四時之名, 春日瓊瑚, 夏曰東海子, 秋曰東天浸, 冬曰夜光池。周百餘里。(1786.5.17.)

93) 이 점과 관련해 '유만주의 조경 계획 중심에는 언제나 연못이 있으며 이는 百頃陂池論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한 선행연구가 참조된다. 안대회, 앞의 논문, 53~54면.

石)이 아롱져 수놓은 듯한 무늬를 이루고 있는 시냇물'인 '운모계'(雲母溪: 일명 繡溪), '장자(莊子)의 이상향 무하유(無何有)의 물가'인 '무하박'(無何泊), '눈송이가 날리며 스며드는 개울'인 '심설간'(沁雪澗), '자꾸만 고개 돌려 바라보게 되는 폭포'인 '회두폭'(回頭瀑), '향기로운 꽃송이가 흐르는 도랑'인 '유방계'(流芳渠), '흰 포말이 날리는 작은 폭포'인 '비백소폭'(飛白小瀑), '이슬이 솟는 우물'인 '연로정'(演露井) 등 다양한 물의 경관을 추가하여 구성되었다. '태사공(太史公)의 샘물'인 '태사천'(太史泉)은 사마천(司馬遷)을 기린 것으로, 역사가 지망생 유만주의 오랜 학문적 이상이 반영된 이름이다.

한편 '수'의 이름 중 '야광지', '수계', '연로정', '태사천'은 『인지동천기』에서도 발견된다.

(18) 송(松): 세한후(歲寒侯), 언개후(偃蓋侯), 후조백(後凋伯), 호산백(湖山伯), 동정후(洞庭侯), 광범후(曠凡侯), 방장후(方丈侯)<sup>94)</sup>

열여덟 번째인 '송'(松)은 소나무의 이름이다. 조경수의 일종인 소나무에 고유명사를 부여한 것은 그가 유독 이 수종을 선호한 데 기인한다.<sup>95)</sup> 소나무의 굳센 가치와 푸르른 의표(儀表)가 주는 탈속한 느낌을 사랑한 그는, 교묘하게 가치를 비틀어 모양을 만든 반송(盤松)보다 어디서든 만나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소나무가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다고 여겼다.<sup>96)</sup> 유만주가 소나무에 붙인 이름으로는, '추운 계절에 푸르다'(歲寒), '엄혹한 시절을 견뎌 나중에 시든다'(後凋), '옆으로 뺨은 가지가 비스듬한 일산 모양을 이룬다'(偃蓋)와 같이 소나무의 덕성이나 모양을 나타낸 관용적 표현을 가져 온 것이 먼저 눈에 띈다. 그리고 '호수와 산'(湖山), '동정호'(洞庭湖), '방장산'(方丈山)과 같이 소나무가 서 있으면 어울릴 것 같은 장소를 이름으로 삼은 예도 있다.<sup>97)</sup> 무엇보다 이런 특성 뒤에 '후'(侯)와 '백'(伯) 같은 작위(爵位)

94) 松名曰: 歲寒侯, 偃蓋侯, 後凋伯, 湖山伯, 洞庭侯, 曠凡侯, 方丈侯.(1787.12.1.)

95) 안대회, 앞의 논문, 53~54면.

96) 유만주 저, 김하라 편역, 『일기를 쓰다』 2(둘베개, 2015) 260면 참조. '그리운 소나무'라는 소제목이 붙은 해당 대목은 1785년 7월 2일의 일기이다.

97) '曠凡侯'는 특 트인 들판에 평범한 듯 비범하게 서 있는 소나무의 형상을 그린 이름이라 생

가 더해졌는데, 이와 같은 의인화의 명명법은 한 장소를 변함없이 지키고 선 이 나무의 굳센 모습에 정감과 위엄을 더하는 효과를 낸다.

한편 소나무의 이름 중 ‘후조백’은 유만주가 사랑한 명동 집의 소나무에 붙여 준 이름이기도 하다.<sup>98)</sup> 그는 그 집을 떠난 지 1년 된 시점에 ‘언제나 맑은 밤 달이 밝을 때면 그 나무가 생각나곤 한다’며 정든 소나무를 그리워했다.<sup>99)</sup> 이런 점에서 상상 세계를 구성하는 소나무의 목록 역시 그의 생애와 추억까지 수렴하는 면모를 갖는다.

(19) 문(門): 옥판문(玉版門), 교룡문(交龍門), 통경문(通敬門), 쇄금문(矚錦門), 하도문(河圖門), 서규문(瑞奎門), 명창문(明昌門), 축석문(矗石門), 향청문(餉淸門), 진지문(眞知門), 대두문(戴斗門), 여지문(荔枝門)<sup>100)</sup>

열아홉 번째인 ‘문’(門)은 이 공간의 여러 관문에 해당하는 듯하다. 먼저, 죽순을 비유하는 ‘옥판’(玉版)과 과일 이름인 ‘여지’(荔枝)처럼 식물 요소를 가져온 것, ‘교룡’(交龍)과 같은 상상의 동물을 가져온 것, ‘축석’(矗石: 겹겹의 바위), ‘쇄금’(矚錦: 비단을 말림)과 같이 무생물에 해당하는 물질적 요소를 가져온 것, ‘대두’(戴斗: ‘북두성을 이다’라는 뜻으로 북방을 가리킴), ‘서규’(瑞奎: 상서로운 구성)와 같이 기상 현상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져온 것 등이 있는데 그 주변 경관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통경’(通敬: ‘경’에 두루 미치다), ‘명창’(明昌: 밝고 창성하다), ‘향청’(餉淸: 맑음을 누리다), ‘진지’(眞知: 참된 앎), ‘하도’(河圖: 하도낙서) 등은 인문학적 관념과 연관된 이름이다.

한편 문의 이름 가운데 ‘옥판문’이나 ‘통경문’은 기존에 지어 둔 것으로, 역시 유만주의 상상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sup>101)</sup>

각된다.

98) 1785년 7월 4일, 창동으로의 이사를 앞둔 유만주는 ‘사계절 서로 마주하는 벗이 되어 평생 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명동 집 뜰에 있는 소나무 세 그루에 ‘夏寒侯’, ‘肅冷侯’, ‘後凋伯’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이름 중 ‘숙령후’를 가장 오래 기억했다.

99) ○余素性甚愛松，適所居之園有古松，余錫號曰肅冷侯。每值清夜，月明輒有想像，漫題韻語五六。(1786.8.16.)

100) 門曰：玉版，交龍，通敬，矚錦，河圖，瑞奎，明昌，矗石，餉淸，眞知，戴斗，荔枝。(1787.12.1.)

101) 道更思玉版雙龍瑞昌通敬諸名，(…)臨華蓬海語，湖之通一名也。(1785.3.3.) 유만주는 부친의 임지인 익산에 다녀오는 길에 ‘옥판’, ‘통경’ 등의 이름을 생각했다 하며 이런 상상을 ‘임

(20) 주(洲): 성월주(星月洲), 귤유주(橘柚洲), 간목주(刊木洲), 석서주(石書洲), 봉설주(蓬雪洲), 영삼주(靈蔭洲), 화본주(畫本洲), 응로주(凝露洲), 홍료주(紅蓼洲), 반도주(蟠桃洲), 비향주(霏香洲), 감학주(嵌壑洲), 허등주(虛磴)<sup>102)</sup>

스무 번째로 ‘섬’ 혹은 ‘대륙’이라는 뜻을 갖는 ‘주’(洲)는 지금까지 제시된 지리적 영역 가운데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이는 이전의 일기에 보이는 ‘6주’(六洲)라는 공간에 뿌리를 둔다. 29세의 유만주는 자신의 이상향에 ‘봉해 6주’(蓬海六洲)라는 공간을 상징하며 ‘화금주’(畫金洲), ‘반도주’(蟠桃洲), ‘축석주’(矗石洲), ‘성월주’(星月洲), ‘감학주’(嵌壑洲), ‘부용주’(芙蓉洲)라는 이름을 붙였는데,<sup>103)</sup> 그 중 셋이 위 목록과 겹치고 있어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봉해 6주에 대해서는 ‘그 바깥 경계의 둘레가 120리인데 커다란 시냇물이 에워싸고 있으며, 사방에 홍교(虹橋)가 열두 개 설치되어 있다’고 전체 그림을 그렸고, ‘2천 호가 거주하고 있어 1호마다 1결(結)을 배정받아 먹고 사는데, 1결은 100무(畝)이고 1무에 1두(斗)를 징수하니 해마다 곡식 2만 섬을 징수하게 된다’<sup>104)</sup>고 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농민의 호수(戶數) 및 그로부터 얻을 세수(稅收)까지 계산해 넣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6주를 한층 구체화해 가락지 두 개가 이어진 연환(連環)의 형상으로 그려냈다.

들으니 바다 밖에 복된 땅이 있는데 모양이 마치 옥가락지가 이어진 것 같다. ①가락지가 이어진 곳에 큰 시냇물이 있어 두 곳을 나눈다. 이에 한 섬이 셋으로 나뉘고 셋으로 나뉜 것이 6주가 된다. 동정이 2천 가(家)이고 중정은 1만 가이

화와 봉해의 말이라고 표현했다; 蘭臺閣, 由玉版門入, 藝文涵邸, 繡通敬門入(1786.1.9.) 1년 뒤 유만주는 ‘옥관문이 난대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통경문은 예문함저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상상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 緩步登昭義門樓, 又轉而西望, 見樹林園臺, 罽畫尤可思也. 思通敬諸門, 匪垣伊城.(1786.3.13.) 두 달 뒤 서경 근처를 걷던 유만주는 ‘통경문 등의 문은 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에 있는 문이다’라고 하여 기존에 저택의 문이던 것을 도성의 문인 것으로 상상 속 설정을 바꾸었다. 이 점은 마지막 목록에 보이는 ‘문’이 정원의 조경 범위를 벗어나 지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과 부합한다.

102) 洲曰: 星月, 橘柚, 刊木, 石書, 蓬雪, 靈蔭, 畫本, 凝露, 紅蓼, 蟠桃, 霏香, 嵌壑, 虛磴.(1787.12.1.)

103) ○擬定蓬海六洲之名, 畫金洲, 蟠桃洲, 矗石洲, 星月洲, 嵌壑洲, 芙蓉洲.(1783.7.11)

104) 周百二十里, 大溪水環之, 以方四面虹十二橋, 準西京城門之支, 實以二千戶, 戶食一結, 結爲百畝, 畝徵一斗, 凡田二千結, 歲徵穀二萬石.(1783.7.11)

며 서정은 8천 가이다. 동서의 2주에는 농사를 짓는 이들이 산다. 그리고 온갖 수공업자와 고기잡이, 무역업 종사자들은 완재주에 산다. 학사(鴻都學士로서 상상 속 유만주의 별명-인용자)의 원택은 예악주에 있다. 강석(礪石: 약재로 쓰이는 광물의 일종)과 이금(泥金: 금가루)이 생산되고 해마다 곡식 2만 섬을 거둔다. 서주에서는 8만 섬의 은을 거두는데, 그 반으로 장기도(長崎島: 나가사키) 및 강남(江南)과 북륙(北陸)과 교역한다.<sup>105)</sup>

이처럼 그는 자신의 상상 속 연환세계를 큰 시냇물로 구획된 6주로 구상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자못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일본 및 중국과 무역활동을 할 정도의 경제적 규모를 소유한 공간으로서 큰 그림을 그려낸다. 허황된 상상이 실재하는 지명과 결부되며 기이한 현실 감각을 보여주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공간적 설정 및 ‘반도주’와 ‘성월주’, ‘감학주’의 이름을 과거의 상상으로부터 계승하여, 유만주는 13개의 ‘주’ 이름을 제시했다. ‘굴과 유자’(橘柚洲), ‘신령스러운 산삼’(靈蓂洲), ‘붉은 여뀌꽃’(紅蓼洲), ‘도삭산의 복숭아’(蟠桃洲) 같은 식물, ‘별과 달’(星月洲), ‘봉래산에 내린 눈’(蓬瀛洲), ‘이슬이 맺힘’(凝露洲), ‘향기로운 안개’(霏香洲) 같은 기상 현상, ‘깊은 골짜기’(嵌壑洲), ‘텅 빈 돌비탈길’(虛磴洲) 같은 자연지형이 주로 보이는 데서 이름을 짓는 데 자연물이 주로 차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를 베어 땅을 정돈함’(刊木洲), ‘돌에 새긴 책’(石書洲)처럼 인간의 활동이 반영된 이름도 일부 섞여 있다.

(21) 벽(壁): 천회벽(千回壁), 만전벽(萬轉壁), 통선벽(通仙壁), 서진벽(棲眞壁), 조권벽(鳥倦壁), 선천벽(先天壁), 혼원벽(混元壁), 홍몽벽(鴻濛壁), 태고벽(太古壁), 응수벽(凝澗壁), 연청벽(燕靑壁)<sup>106)</sup>

105) ○聞海外有卍地, 形如玉連環。㉠連環處, 有大溪水雙隔之。於是乎一島三分, 三分六洲, 東丁二千家, 中丁一萬家, 西丁八千家, 東西二洲, 耕稼之功居焉, 而百工, 漁採, 通易諸戶居宛在洲。學士園坵, 于禮樂洲。產礪石泥金, 歲收時穀二萬石。西洲收八萬石銀, 其半通易于長崎島及江南北陸。(1784.5.9.) ‘㉠’ 표시는 저본에 붓두껍으로 겹쳐지도록 두 번 찍어 連環의 형상을 저자가 스스로 표현한 것이다.

106) 壁曰: 千回, 萬轉, 通仙, 棲眞, 鳥倦, 先天, 混元, 鴻濛, 太古, 凝澗, 燕靑。(1787.12.1.)

목록의 마지막인 스물한 번째 범주는 ‘벽’(壁)이다. 이는 유만주의 상상 속 기암절벽들을 수렴하며 이곳의 경관을 상상하게 하는 이름들이다.

일천 번 돌아 오르는 ‘천회벽’(千回壁)과 일만 번 돌아 오르는 ‘만전벽’(萬轉壁), 새도 날다 지치는 ‘조권벽’(鳥倦壁)은 높고 험준한 바위산의 모습을 그리게 한다. ‘심오한 기운이 깃들었다’는 의미의 ‘응수벽’(凝濤壁)과 검푸른 빛깔을 나타낸 ‘연청벽’(燕靑壁)이라는 이름은 험준한 바위산에 구체적인 분위기와 색깔을 더한다. 한편 신선의 세계와 만나게 되는 ‘통선벽’(通仙壁)과 마음을 통일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수련을 통해 참됨이 깃들게 되는 ‘서진벽’(棲眞壁)이라는 이름은 이 바위산을 도가적 분위기로 물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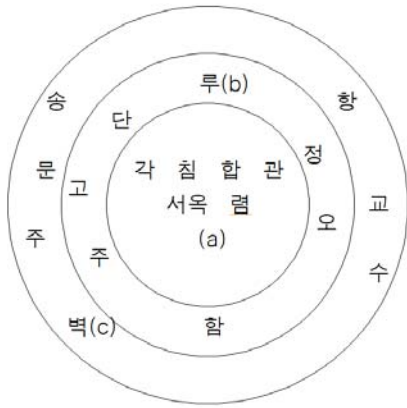
그러나 유만주의 내면풍경을 반영한 이 자연경관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선천벽, 혼원벽, 홍몽벽, 태고벽이라는 비슷한 이름들이다. 처음 하늘이 열리던 ‘선천’(先天),<sup>107)</sup> 천지와 우주를 일컫는 ‘혼원’(混元),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천지의 원기를 뜻하는 ‘홍몽’(鴻濛), 역사 이전의 오랜 옛날을 의미하는 ‘태고’(太古)를 이름으로 삼음으로써 이 기암절벽들은 심원한 우주의 시간을 표상하게 된다. 이 자연경관이 천지의 시작과 더불어 생성되어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는 이와 같은 명명법은 오래된 풍경에 대한 경외심의 반영일 터인데, 이는 유만주가 실제로 충청도 단양 등지에서 태곳적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지형을 보았을 때의 반응과 상통한다.<sup>108)</sup>

### 3. 목록으로 그린 기이한 그림, 임화동천(臨華洞天)

이상과 같이 유만주의 1787년 12월 1일 일기에 기록된 ‘원서제편’(園墅題編)의 목록을 살펴보았다. 장서각인 ‘각’부터 기암절벽인 ‘벽’까지 21개의 범

107) 先天: 『주역』에서는 천지의 생성에 대해, 복회(復會)에 하늘이 열리고, 임회(臨會)에 땅이 열리고, 태회(泰會)에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탄생했다고 한다. 한편 복회부터 임회, 태회, 대장회(大壯會), 궤회(夬會), 건회(乾會)까지 6만 4800년을 선천이라 하고 구회(姤會)부터 돈회(遯會), 비회(否會), 관회(觀會), 박회(剝會), 곤회(坤會)까지 6만 4800년을 후천이라 하는데, 건회에 태어난 복희씨(伏羲氏)가 선천도를, 구회에 태어난 문왕(文王)이 후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된다. ‘선천벽’은 이와 같은 천지의 장구한 시간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반영한 이름으로, 하늘이 열린 ‘복회’라는 시간을 표상한 것이라 생각된다.

108) 유만주 저, 김하라 편역, 『단양의 풍경』(『일기를 쓰다』 2, 돌베개, 2015) 116~134면. 해당 대목은 1778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단양을 유람하며 쓴 일기이다.



<도판3> '원서 편액'의 목록이 그려낸 세계

해당하는 각(閣), 침(寢), 합(閣), 관(館), 서옥(書屋), 옴(簾)으로, 이 목록이 그리는 세계의 핵심부가 되는 공간을 이루는 것들이다(a).

둘째, 별채의 성격을 띠거나 정원의 조경과 관련된 누(樓), 정(亭), 오(輿), 당(堂), 함(檻), 주(廚), 고(庫), 단(壇)으로, 별서의 정원 혹은 원림에 포진한 건축물이다(b).

셋째, 집과 정원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펼쳐질 범한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에 해당하는 향(巷), 교(橋), 수(水), 송(松), 문(門), 주(洲), 벽(壁)으로, 일종의 상상적 지리지를 이루는 것들이다(c).

다시 말해 전각과 침실과 규합, 객관과 서옥 등 여러 채의 건물로 구성된 저택과, 그 저택 밖의 부속건물인 밀실과 주방 및 창고, 정원의 조경을 위해 배치된 누정과 난간, 토단과 석단 등을 차례로 그려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별서 너머에 존재하는 마을과 물길, 다리, 문, 암벽과 소나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별서와 관련된 가장 넓은 공간인 어떤 대륙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그림을 그려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목록은 순차적으로 뚜렷한 공간적 확장의 방향성을 보인다. 그에 따라 목록을 읽어나가는 일은 동심원의 핵심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여행이 된다. 동아시아의 모든 책을 망라한 거대한 장서각에서 출발해, 태초의 오랜 풍경을 간직한 김푸르고 높다란 절벽을 마주하며 끝나는 이 여

주를 순서대로 살피며 그 범주의 하위항목을 이루는 213개의 이름들을 분석한 결과, 이 목록이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에 따라 안배되어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다. 먼저 이 목록의 21개 범주는 다시 다음의 세 가지 상위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별서의 본체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행은 유만주의 내면풍경을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 목록은, 유만주의 욕망 및 경험과 관련한 자기서사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스스로의 생애를 돌아보며, 상상과 실제 경험을 막론하고 자신이 좋아해 끝내 간직하고 싶었던 것을 이 목록에 넣었다. 그는 평생 읽은 책과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무한히 갱신하며 쌓아 올린 거대한 장서각 ‘삼재만물대일통각’을 이상향의 심장부에 표시했다. 늘 갈망하던 상상의 도서관을 이런 방식으로 결국 소유했다.

오래 그려온 이상향을 구성하는 여러 이름들을 계승해 만들어진 이 목록에는 유만주의 생애와 추억도 끼어들어 있다. 그래서 실재하지 않는 상상 속 이름이 대부분인 이 목록 가운데는, 첫아들을 낳고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난 아내 해주오씨를 다시 만날 공간 ‘춘몽속현오’, 평생을 함께 한 벗 임노와 건넌고 싶은 다리인 ‘화리교’, 20대 초반에 역사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청청한 시간을 보냈던 경상도 군위현의 책방(冊房) ‘성하서옥’과 ‘송란서옥’ 같은 이름도 들어가 있다. 이에 유만주의 오랜 백일몽이 그려진 이 목록은, 다른 한편으로 그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으며, 삶에서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어디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서사로서의 성격도 갖게 된다. 결국 그는 12년 12개월째 써 온 일기의 결말을 앞둔 1787년 12월 1일에 자기 마음 속 지도를 그렸고, 그렇게 마련된 공간에 생애의 소중한 존재들까지 새겨 넣었다. 이로써 그는 사건이나 업적보다 계획과 꿈이 훨씬 많았던 자신의 삶의 시간을 공간화했다. 유만주는 꿈의 풍경을 만드는 즐거움에 대해 ‘나는 꿈에 산과 강물이 되고, 산과 강물은 꿈에 내가 된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sup>109</sup> 이 목록을 통해 그는 ‘꿈에 산과 강물이 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유만주가 만든 목록은 그가 사랑한 이름들을 수집한 박물관이자 그 이름들이 사는 집으로 남았고, 이렇게 그는 오래 간직한 꿈과 잊지 못할 경험들까지 끝내 소유했다.

한편 이 목록 뒤에는 다음과 같은 발문이 붙어 있다.

別有鑿山通道,	따로 산을 뚫어 길을 내니
地少雲多,	땅 적고 구름 많은 곳에

109) 我夢爲山河, 山河夢爲我. 豈優於莊子胡蝶之寓言與.(1786.9.24.)

別有天地	별천지가 있어
臨華洞天	임화동천이라 하네.
避兵福地	병화를 피하는 복된 땅
天上人間	천상의 인간보다
不已多乎!	이미 좋지 않은가.
玄之又玄,	현묘하고 또 현묘하나니
海嶽莽蒼之觀	바다와 산악의 아득한 장관이여
大丈夫不遇之居,	때를 만나지 못한 대장부의 거처
大便宜之壺,	크게 편의한 호천(壺天)이라네.
山河一氣,	산과 강물의 한 기운에
永矢不諼,	영영 잊지 않으리라 맹세하네.
從吾所好諸刻,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 여러 이름 새겼으니
名山大川,	명산대천은
孔穴相通	공혈이 서로 통하네.

발문에서는 목록이 그려낸 ‘별천지’의 이름이 ‘임화동천’이며, 목록을 구성하는 213개의 편역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새긴 여러 이름들’임을 명확히 밝힌다. 이 말은 그의 원서제편 목록이 적어도 1775년부터 품고 있던 ‘임화’라는 이상향의 기획을 계승한 것이며, 온전히 자신의 취향을 좇아 붙인 상상 속 장소의 이름들로 채워진 것임을 의미한다. 즉 임화동천은

바다와 산악의 아득한 장관을 품은 이 아름다운 공간이 ‘불우한 대장부’에게 ‘호천’(壺天), 즉 별세계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임화동천’의 축조는 서사를 함축한 허구적 공간의 기획이라 규정할 수 있으며, 유만주의 이와 같은 글쓰기는 ‘이상향적 허구’로서 전형성을 띤다.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상상해 문자화하며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 결과물로서 소설적 결구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소설적 지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0)</sup> 일찍이 푸코가 유토피아의 속성을 탐구하며 “태곳적부터 정원은 유토피아의 장소다. 사실 소설은 틀림없이 정원이라는 제도 자체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 소설적 활동은 조경적 활동이다.”<sup>111)</sup>라고 말한

110) 최지녀, 『유만주의 소설 읽기와 쓰기』, 『어문연구』 47권 4호, 2019.

111) 푸코 저,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18~20면.

바 있거니와, 유만주의 임화동천은 서사를 함축한 허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조경적 활동이면서 소설적 활동’인 유토피아 기획의 전형적 예에 해당한다.

#### IV. 마지막 구절의 의미: 마음의 붉은 눈송이가 그치도록

‘원서 제편’의 목록과 발문을 쓴 후 며칠간 붓을 놓은 유만주가 다시 일기를 쓴 것은 12월 7일의 일이었다. 병 때문에 삭전이 여의치 못했던바, 다시 제문을 써 아들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날의 일기에서 그는 “내가 어질지 못한 탓에 참으로 네가 기박한 운명에 처했고, 내가 자애롭지 못한 탓에 참으로 네가 액운을 맞게 되었다. 아득한 회한은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 어떻게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부딪치는 곳마다 슬픔이 일어나 애오라지 또 쓸데없이 붓을 놀리지만 텅 빈 집의 네 영전(靈前)에 눈물만 흘릴 뿐이다.”<sup>112)</sup>라고 제문을 맺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아들의 영좌(靈坐)에 상식(上食)을 하고 전날 쓴 제문을 읽은 후 지난번에 지내지 못한 삭전을 7일 지난 12월 8일에 지내게 되었다고 고했다. 그는 상복을 벗고 제문을 태우며 아들을 위한 추모의 예를 마쳤다.<sup>113)</sup> 그리고 6일 후 다음과 같이 일기의 마지막 구절을 썼다.

14일. 달 그림을 제어하여 끊어버려 마음에 연지분으로 치장하는 일을 그칠 수 있도록 한다.<sup>114)</sup>

유만주는 마지막 일기를 쓰기로 기약한 1787년 12월 1일, ‘원서제편’이라는 실재하지 않는 공간을 구성하는 세부사항의 이름을 분류해 적은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은, 그가 평생 만든 수많은 ‘가지지 못한 것’의 목록 중 마

112) 初七日 庚子。○(…·)嗚呼! 吾之不仁, 固汝畸命; 吾之不慈, 固汝劫數, 悠悠恨悔, 在我而不在汝, 尚可以無奈何自恕耶? 觸境起悼, 聊又剩筆, 靈帛虛堂, 有淚而已。(1787.12.7.)

113) 初八日辛丑。○因朝上神食, 讀告前文, 頭辭更以云云。因朔奠, 擬略具文字, 以告亡兒靈帛之前, 會以病未果。越七日辛丑, 服始追除, 仍告以文撤神食除殤服, 取文焚化靈帛之前。(1787.12.8.)

114) 十四日。月書制斷, 剋止心丹雪。(1787.12.14.)

지막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자기서사의 귀결점이며, 『흙영』의 결론과도 연관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한 이 아름답고 쓸모없는 목록은 ‘임화동천’이라는 상상의 공간을 정돈하며 그려낸 일종의 세밀화였다. 오랜 이상향을 정성들여 그려낸 목록의 회화적 특성이, 마지막 일기에서 ‘끊어버리고자’(斷) 했던 ‘달 그림’과 연결된다고 보인다.

이 마지막 말에는, 자신을 평생 지탱해 주었던 “나는 꿈에 산과 강물이 되고, 산과 강물은 꿈에 내가 된다”와 같은 상상력을 수치스러워하고 경멸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자아를 구성하는 ‘임화동천’을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는 말로서 심각한 자기부정을 함의한다. 이에 유만주는 더 이상 글을 쓰고 삶을 살아갈 여지를 스스로 허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이해되며, 그런 의미에서 『흙영』의 마지막 문장은 이후의 절필, 그리고 일기 없는 한 달 보름 뒤 그가 사망한 일과 조용한다.

유만주는 1775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썼다. 12년간 정성스레 일기를 이어 오던 그는 1787년 5월 장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일기쓰기를 중단했다. 그는 죽은 아들의 애도 기간으로 규정된 7개월 동안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일기를 더 쓰고 그 뒤로는 완전히 그만두기로 자신과 약속했다. 그는 약속대로 1787년 12월 14일에 “달 그림을 제어해 중단하고, 마음의 붉은 눈송이가 그치게 한다”라는 모호한 문장을 썼고, 그렇게 일기를 끝냈다.

이 글에서는 그가 절필을 앞둔 1787년 12월 1일에 작성한 ‘원서 제편’ 목록을 분석해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했다. 유만주가 사랑하고 꿈꾼 풍경과 공간을 수렴한 이 목록은 1775년부터 그가 지속적으로 시도한 ‘임화동천’이라는 이상향의 기획을 계승하여 결산한 것이다. 또한 이 목록은 심미적 몽상가이자 소설가로 나아가던 유만주의 자아를 그려낸 마음 속 그림이자 일종의 자기서사다.

한편 아들의 애도를 위해 일기를 쓰던 중 자신의 미적 취향에 집중한 글쓰기로 일탈한 유만주는 그런 자신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애도하는 절차를 마친 후 더 이상 꿈과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수식을 일삼는 글쓰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마지막 문장을 썼다. ‘달 그림’이란 그의 몽상이 그려낸 풍경을 가리키고, ‘마음의 붉은 눈송이’란 아름다운 상상세계를 치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결국

유만주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끝까지 간직했던 그의 심미적 취향과 일생의 몽상을 부인하는 말이었으며, 심각한 자기부정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문장을 통해 유만주가 더 이상 글을 쓰고 살아갈 여지를 스스로 허용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점에서 『흙영』의 마지막 문장은 일기에 남긴 유만주의 유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쓰고 한 달 보름 지난 1788년 1월 29일, 유만주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그는 죽기 전 아버지에게 “일기는 제가 완성하지 못한 책이니 불태워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sup>115)</sup> 공교롭게도 유만주가 일기에 쓴 마지막 문장과 살아서 남긴 마지막 말은 평생 동안 정성과 열의와 기쁨을 가지고 수행해 왔던 글쓰기를 부정함으로써 자기소멸을 회구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115) 且死顯謂其父曰：“記日兒未成之書也，請火之。”(俞漢雋，『欽英記日序』，『自著』準本1)

## 참고문헌

### 1. 자료

- 俞晩柱, 『欽英』 1~6, 서울대학교규장각, 1997.  
\_\_\_\_\_, 『通園藁』(규장각 소장 필사본).  
俞漢雋, 『自著』(한국문집총간 249책), 민족문화추진회, 2000.  
유만주 저, 김하라 편역, 『일기를 쓰다』 1·2, 돌베개, 2021.  
이언진 저, 박희병 역, 『골목길 나의 집: 이언진 시집』, 돌베개, 2009.

### 2. 단행본

- 박경자, 『중국의 정원』, 학연문화사, 2010.  
\_\_\_\_\_, 『한국의 정원』, 서교출판사, 2015.  
박완서, 『예술사 구술 총서 5: 박완서』, 수류산방, 2012.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흐름, 2009.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이성미,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대원사, 2000.  
주남철,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푸코 저,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 3. 논문

- 김대중, 『유만주의 가옥 구매』, 『한국실학연구』 27, 한국실학회, 2014. 159~197면.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欽英』과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호, 동양한학회, 2010. 5~28면.  
김하라, 『『흠영』 일기에 재현된 경험적 시간의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477~506면.  
\_\_\_\_\_, 『유만주의 『흠영』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1~256면.  
\_\_\_\_\_, 『유만주의 『전목재 연보』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265~309면.  
안대회, 『통원 유만주의 조경미학』,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집 1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48~56면.  
우연주,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관 형성과 도시 공원의 태동』,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 1~103면.  
이종목, 『성리학적 사유를 구현한 조선 선비의 집』, 『남명학』 14, 남명학연구원, 2009.

303~333면.

- 이현우 외, 『편역과 시문으로 본 요월정원림의 입지 및 조영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권 3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4. 32~46면.
- 장림 외, 『『한정우기』를 통해 본 이어의 조원 이론』,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권 3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8. 137~149면.
- 최지녀, 『유만주의 소설 읽기와 쓰기』, 『어문연구』 47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139~165면.
- 함광민, 『편역에 함의된 경관 및 상징요소의 출현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권 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6. 78~89면.
- \_\_\_\_\_, 『편역을 통해 본 중국 졸정원의 의미와 공간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권 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98~109면.
- 홍형순, 『象數원리를 정원구성에 적용한 龍圖墅와 龜文園』,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권 2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2. 119~129면.

## Yu Man-ju's Last Diary and Planning of an Ideal Space

Kim, Ha-ra

In the late 18th century, Seoul's intellectual Yu Man-ju(1755~1788) started writing his diary *Heumyeong* on January 1st, 1775. After keeping a diary for 12 years, he was shocked by the death of his eldest son in May 1787 and stopped writing the diary. He promised himself that he would write more diaries in memory of his son during the seven months defined as a period of mourning for his deceased son, after which he would quit completely. As promised, on December 14, 1787, he wrote the ambiguous sentence: "Take control of the drawing of the moon and stop it, and let the red snowflakes of your heart cease", and thus ended the diary.

In this paper, I tried to read the meaning of this last sentence by analyzing the 'Plaques of Garden' written on December 1st, 1787, just before he quit his diary. 'Plaques of Garden' is a list consisting of 21 categories of buildings, landscaping facilities and natural environments, and 213 names of individual items in each category. These names constitute a space called 'The Ideal Land of Imhwa'. This list, which converges the landscapes and places that Yu Man-ju loved and dreamed of, succeeded and settled the utopia project called 'The Ideal Land of Imhwa', which he has continuously attempted since 1775. Also, this list is a mental picture and a kind of self-narrative depicting the self of Yu Man-ju, who was an aesthetic dreamer and on the way to becoming novelist.

On the other hand, while writing a diary for his son's mourning, Yu Man-ju, who deviated from writing focused on his own aesthetic taste, felt deeply guilty and ashamed of himself. So, he wrote the last sentence with the intention that he would no longer indulge in dreams and beauty and write decorative articles. I think that the 'moon drawing' refers to the landscape drawn by his dream, and the 'red snowflake of the heart' refers to the act of adorning a beautiful imaginary world. In the end, the last sentence of Yu Man-ju's diary was a denial of his aesthetic taste and lifelong dream that he had kept until the end. This statement is problematic

in that it implies serious self-denial. Through this last sentence, it can be seen that Yu Man-ju no longer allows himself to write and live. This coincides with the death of Yu Man-ju on January 29, 1788, less than a month after the diary ended.

Keywords: Yu Man-ju, *Heumyeong*, diary, Utopia, list, self-narrative, landscape gardening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게재결정: 2022. 5. 10.